

2018 서울노인영화제

대한극장 2018.10.24(수)~27(토)

커버스토리

홍원표 작가 '바라바빠'

노인과 청년이 영화로 만나 세대 간의 이견을 줄이고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서울노인영화제의 포스터 작업을 마쳤다. 두 세대가 함께 영화를 통해 행복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어느덧 11회를 맞이한 서울노인영화제가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세대들의 다양한 시점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의미있는 영화제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 홍원표 작가 -

서울노인영화제 문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서울노인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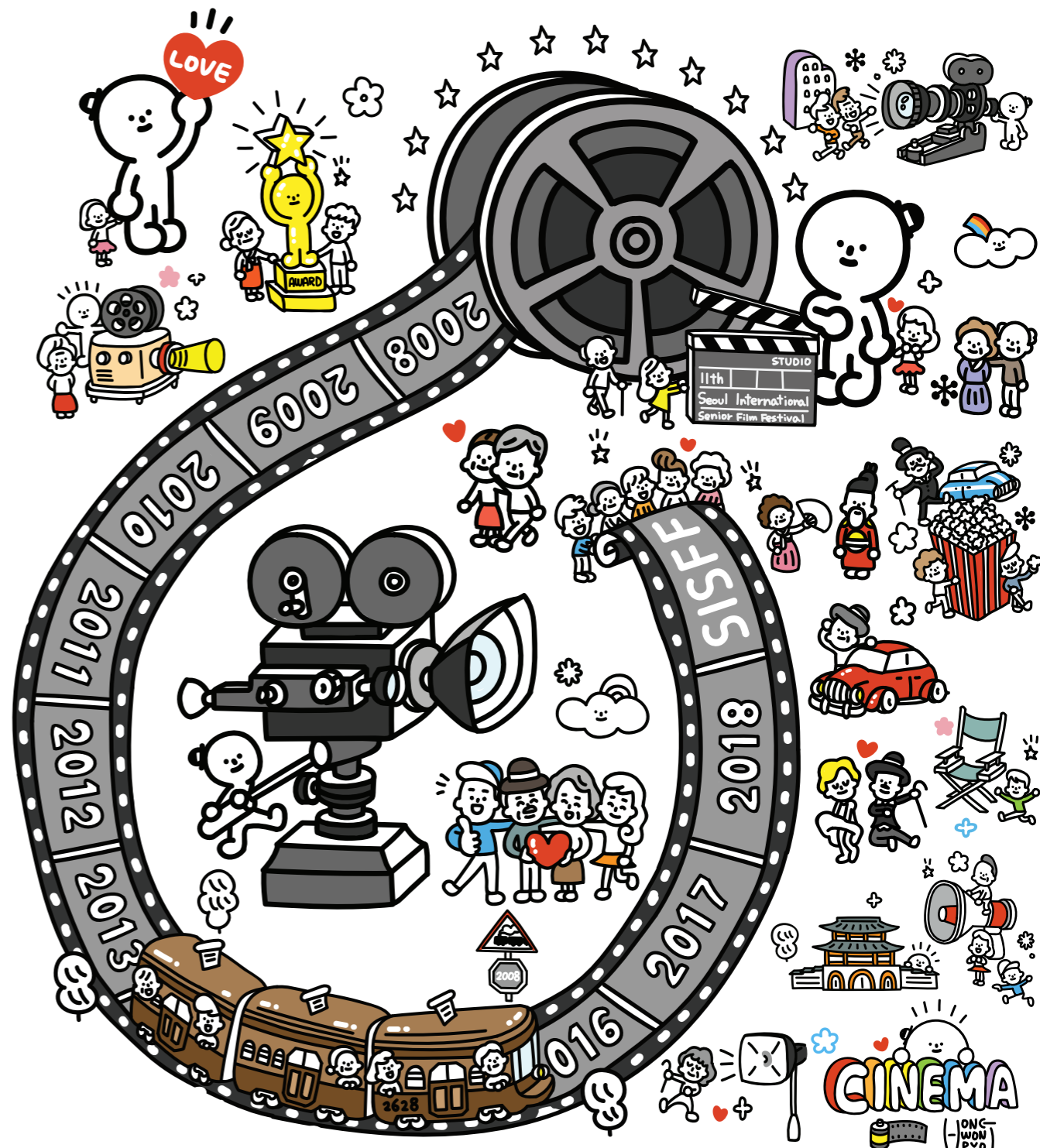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sisff.seoulnoin.or.kr>

전화 02.6220.8691~2

팩스 02.6220.8608

메일 sisff@daum.net

2018 서울노인영화제 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





2018 신한금융투자 연이은 쾌거를 이뤄내다

저희 신한금융투자 임직원 모두는
더 큰 노력과 성과로 고객님께 보답하겠습니다.



★★★★

2018 상반기 한국서비스품질지수
KS-SQI 증권 부문 1위

2018 상반기 한경비즈니스 베스트 증권사
종합 1위 대상 및 베스트 애널리스트
12개 부문 1위 석권

2018 하반기 국민연금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1등급 선정

무디스 A3, S&P A-
국제 신용등급 획득

신한금융투자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8-9118호(2018.7.26-2019.7.25)

프로들의 자산관리 | 신한금융투자



KOREA LEGACY COMMITTEE

코리아레거시커미티는
한국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당면한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힘쓰며,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후원파티를 통한 모금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 프로페셔널 그룹입니다.

The Korea Legacy Committee is a group of young professionals
dedicated to raising awareness and funds to provide support
and love to our elderly population. Through volunteer events
and fundraising efforts, the KLC aims to alleviate the heavy
burden facing Korea's aging senior citizens.

Please contact us at

korealegacycommittee@gmail.com
korealegacy.com
facebook.com/korealegacy

정성을 다해 부드럽게 만든
Softmade
소프트메이드

[Soft : 부드러운, 연한, 무른] + [Made : 만든다]

시니어의 행복한 식사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부드럽게 만든’
시니어 전문 식자재 브랜드입니다.

주요 사용시설

복지관 · 양로원 · 요양원 · 요양병원

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

2018 서울노인영화제
2018.10.24.(수)-27.(토), 4일간

일정 2018년 10월 24일(수)-10월 27일(토)

장소 대한극장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주관 서울노인영화제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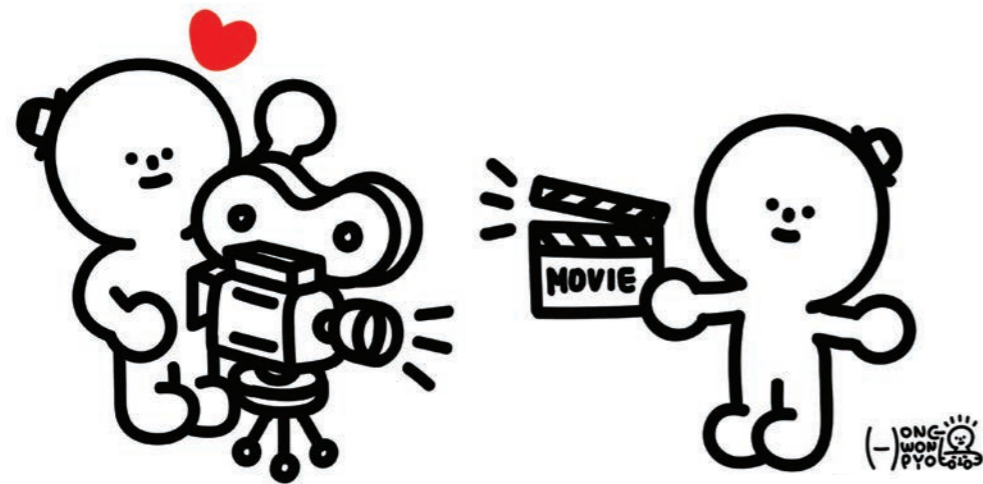





공식사이트 sisff.seoulnoir.or.kr

Facebook www.facebook.com/sisff.seoulnoir/

Instagram www.instagram.com/2018_sisff/



노인 감독에게는 영화를 매개로 삶과 우리 사회를 재조명하고,
젊은 감독에게는 ‘노년’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노년’을 주제로 소통하는 서울노인영화제.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서울노인영화제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회사 Opening Message

2018 서울노인영화제는 지난 10년을 기반삼아 초심으로 돌아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꾸렸습니다.
세대 간 극명한 인식 차를 보인 초창기와 달리, ‘노년의 삶’을 다룬 영화의 시도는 다양해지고 참여분야는 세
분화됐습니다. 영화를 매개로 노인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년은 우울하
고 무기력하기만 한 노인 외에도 미처 몰랐던 그들의 모습을 인식하고, 나아가 노인문제를 가족의 문제, 사
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어르신은 관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작 이후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올해 서울노인영화제 컨셉은, ‘있다-있다’로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있다, 그리고 청년이 있다, 또 어르신과
청년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이어가겠다는 의미의 ‘있다’를 컨셉으로 삼았습니다.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세대가 서로에게 필요한 세대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기대하며 앞으로의 삶을
연대하며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 최다 출품작을 기록한 서울노인영화제는 청년감독의 작품이 직면한 문제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다
음세대를 기다려주고 지혜롭게 이끄는 어른의 모습을 그려 내어 노년을 두려움만으로 해석하는 예년 작품과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4개국 81편의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18 서
울노인영화제가 국제영화제로써 면모를 갖추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세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젊은 층을 비롯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가치관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주목할 점은 노인 감독의 극영화부문 작품의 증가입니다.
영화적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되는 어르신들의 노력과 협업의 결과라고 해석됩니다. Know-ing
섹션 중 여성의 삶을 참신한 다큐멘터리로 그린 미안마특별전 작품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일상, 평범한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서울노인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서울노인영화제가 세대 간의 공감과 화합의 장으로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히유헌

제11회 서울노인영화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과 청년감독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이 자리에는 개막작 ‘꽃손’의 출연진과 서울노인영화제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08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노인영화제로 ‘영화’를 매개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어느덧 제11회를 맞이한 서울노인영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영화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서울노인영화제에는 역대 최다인 203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고 하지요.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진 경쟁률을堂堂히 뚫고 본선진출에 성공한 24편 작품의 감독분들께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초청작을 비롯한 81편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어르신과 청년 감독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서울노인영화제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권익옹호 및 노인 세대를 넘어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내 왔음을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노인영화제가 새로운 어르신 문화 형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행복과 연결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로서 어르신들께서 진정으로 행복한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공연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행복콘서트, 추억을 함께하는 실버영화관 운영, 유쾌한 노년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만학의 꿈을 이루어줄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등 어르신들이 문화향유의 주된 세대이자 더 나아가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인영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서울노인영화제의 무궁한 발전과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항상 어르신과 청년감독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현입니다.

한 여름의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국화 향기를 가득 머금고 불어오는 바람에서 벌써 완연한 가을임이 느껴집니다.

다양 한 세대가 노인과 영화를 매개로 하나 되는 축제, 서울노인영화제가 벌써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연륜과 세월에도 식지 않는 열정을 알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노인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조그맣게 시작했던 서울노인영화제가 이제는 명실상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축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올해는 해외 13개국 22작품을 초청하였고, 특히 해외 유수의 노인 감독들의 작품을 초청하여 어느 때보다 풍성한 영화제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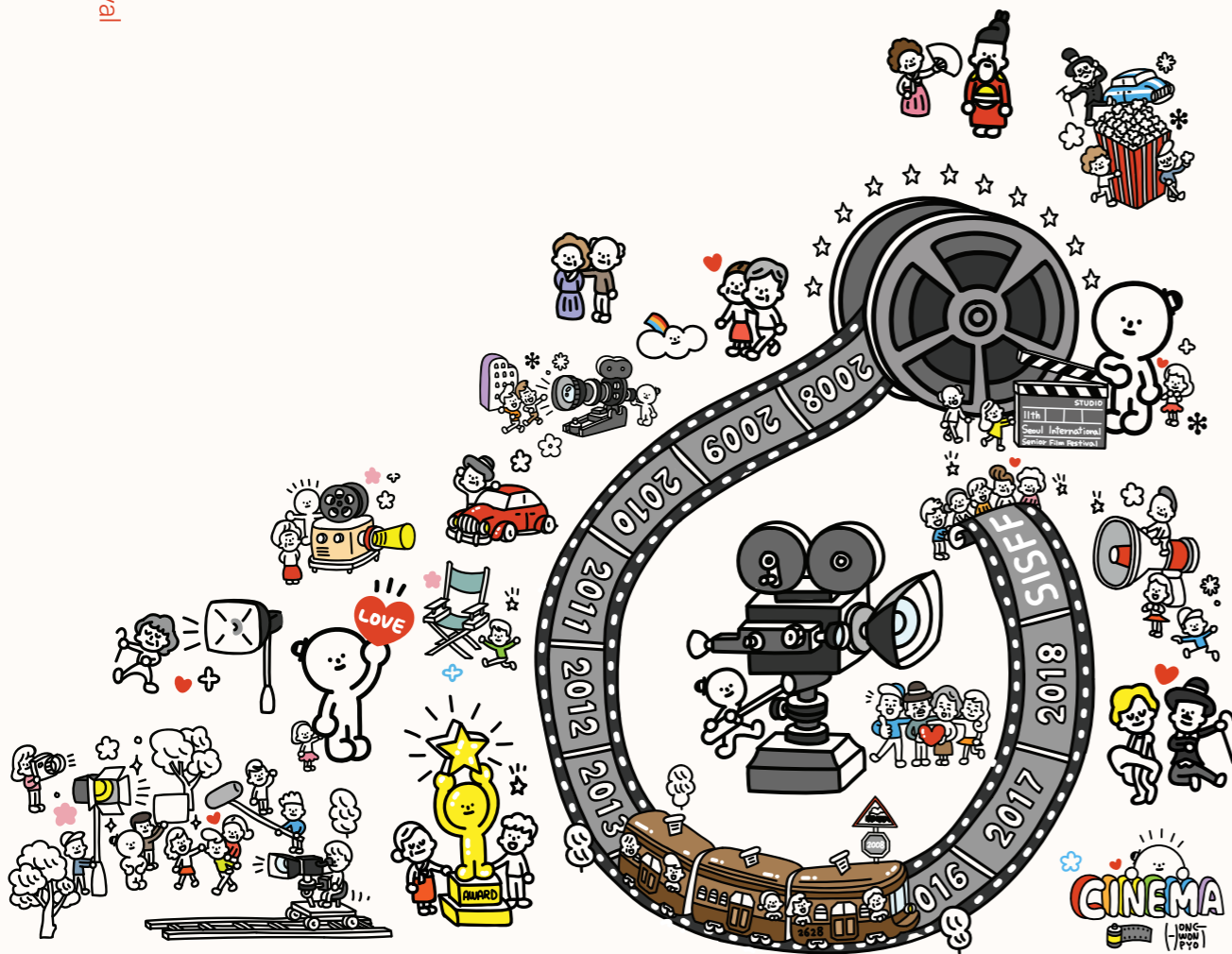
이렇듯, 해마다 도전과 도전을 거듭하는 서울노인영화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영화제로서 초석을 놓고,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한 해이기에 내년 그리고 내 후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더 큰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화제를 만들기까지 애쓰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서울노인영화제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큰 감사를 전합니다.

이 가을, 서울노인영화제의 따뜻한 작품들이 서울노인영화제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지현 합장

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



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

05	개회사 Opening Message
06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07	치사 Complimentary Message
10	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 Festival Staff & Related Person
12	2018 서울노인영화제 컨셉 Concept of the SISFF
13	포스터 및 트레일러 Poster & Trailer
15	홍보대사 Honorary Ambassador
16	심사총평 Review on Competition Section and Awards
18	집행위원 및 심사위원 Jury
20	2018 서울노인영화제 주요 일정 2018 SISFF Schedule
22	2018 서울노인영화제 상영작 2018 SISFF Screening Program
23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25	단편경쟁 1 Competition for Shorts 1
28	단편경쟁 2 Competition for Shorts 2
31	단편경쟁 3 Competition for Shorts 3
34	단편경쟁 4 Competition for Shorts 4
37	단편경쟁 5 Competition for Shorts 5
40	도슨트초이스 Docents' Choice
43	명예의 전당 The Hall of Fame
44	시스프렌드 감독특별전 SISFF Friend Director Section
47	해외단편 YOUTH International Shorts_YOUTH
51	해외단편 SENIOR International Shorts_SENIOR
54	해외장편 International Feature Film
55	마스터클래스 Masterclass
57	국내특별장편 Korean Feature Film
60	Know-ing: 미얀마 특별전 Myanmar Special Section
62	Know-ing: 예술농부 프로젝트 Art Farmer
64	Know-ing: 노인영상자서전 Senior Autobiography of a Video
68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2018 Senior Culture Program
74	부대행사 Events
76	티켓예매방법 Ticket Information



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 Festival Staff & Related Person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SISFF Director

희유

집행위원 Committee Members

정장진, 김태영, 진모영, 최세영, 김형용, 강석문, 김도현, 정민화

심사위원 Jury

임오정, 김재록, 임태리, 남순아, 백승화, 김문옥, 배숙경

프로그래머 Programmer

윤나리

사무국 Festival Office

송화진, 함상원, 홍지현, 박동선, 이윤기, 이수진

서울노인복지센터 Seoul Senior Welfare Center

고광희, 권영신, 권용현, 김경민, 김동우, 김민우, 김보미, 김슬기, 김영민, 김영지, 김주연, 김지현, 김효선
김효선, 문관순, 문희정, 박동선, 박순박, 박주임, 박지선, 박충식, 백가람, 변은지, 손경옥, 송창호, 송화진
신정식, 신종호, 신현국, 신희정, 심규희, 어윤지, 여채은, 오종인, 유미리, 유재철, 유진선, 이민석, 이석영
이성세, 이수진, 이윤기, 이현주, 이효정, 임현주, 장세진, 정두혁, 조용태, 조혜인, 지은석, 최선희, 최종문
한은경, 함상원, 허수정, 홍지현

시스프렌드_자원활동가 SISFFRIEND_ Volunteers

강영자, 구영식, 권영형, 김목진, 남궁옥순, 박수빈, 박점봉, 송송자, 송수남, 오다빈, 오정자,
윤무영, 이아연, 이재중, 이정숙, 장희성, 최규종, 최수연, 한한복

시스프렌드_관객심사단 SISFFRIEND_ Audience Jury

강신석, 이윤곤, 이성재, 김동환, 송민지, 박연이, 김민지, 장재원, 박성진, 박준성,
이현정, 이다혜, 차정한, 김정애, 권순열, 박종택, 송혜경, 원정란, 주득춘, 차정삼, 홍희정

영화도슨트 봉사회 Docents

권순열, 권명안, 김정애, 박종택, 백영자, 손양숙, 송혜경, 안경준, 오정국, 이승철, 이정숙
정재중, 주득춘, 차정삼, 홍희정

트레일러 연출 Director of Trailer

포레스트 이안 엣슬러

트레일러 출연 배우 Actor of Trailer

김갑순, 김명여, 김원주, 김순애, 민병림, 민병순, 송수남, 송영희, 심충자, 오채아, 장근춘, 조순연,
한상섭, 한성자, 한현옥

포스터 디자인 Artist

홍원표

출판 디자인 Publication Designer

(주)디자인비니

번역 Translator

윤나리, 김다혜, 김지현, 홍지현, 이수진

뉴스레터 Newsletter

리니어 콜렉티브

기술팀 Technical Dept.

진미디어

영화제 촬영·편집 Festival Cinematographer·Editor

고경민, 장재원

Special Thanks to...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강혜경, 김경미(희유스님), 김미경, 김성근, 김영민, 김윤경, 남석인, 민철기, 박동선, 박순박, 박주임
박지선, 박한옥, 박형진, 송화진, 신선영, 신정란, 심병준, 유진선, 윤나리, 윤민석, 이명희, 이수영
이수진, 이윤기, 장혜영, 정희정, 진모영, 최대현, 한재선(육통스님), 홍지선, 홍지현

※ 그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있다, 잇다’

제11회 서울노인영화제의 슬로건은 ‘있다, 잇다’입니다.

영화제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이어간다는 의미의 이번 슬로건은 노인과 청년은 모두 존재하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현실에서 영화를 매개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를 잇고자 합니다. 국내외 노년 문화를 다룬 다채로운 영화를 초청하여 노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가는 서울노인영화제는 누군가 겪고 있는 혹은 누구든 겪게 될 ‘노년’이 청년과 노인의 구분보다 실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있다’와 ‘잇다’의 받침인 ‘ㅈ’은 한자 ‘人’(사람 인)을 형태와 유사합니다. ‘人’(사람 인)은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문자라는 점에서, 서울노인영화제를 통해 노인과 청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18 서울노인영화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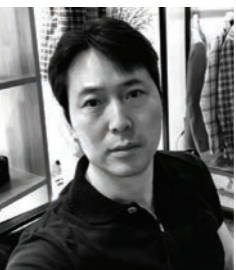
2018 서울노인영화제의 포스터 제작에는 ‘바라바빠’를 그린 홍원표 작가가 참여했다. ‘바라바빠’는 노년과 청년이 서로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영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기를 바라는 서울노인영화제와 취지를 공유하고 있다. ‘바라보다’와 ‘바람’의 뜻을 담은 바라바빠는 홍원표 작가가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자 만든 캐릭터이다. 바라바빠는 단순하면서도 둥글둥글한 캐릭터가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형태로, 보는 사람들의 모난 마음을 둥글게 만들어준다.

개인전

2017 개인전 서울혁신파크, 서울
2016 개인전 롯데호텔갤러리, 서울
2015 개인전 롯데갤러리, 경기도 일산
2014 개인전 롯데갤러리, 서울

라이브 드로잉

2018 오두산 통일전망대 전시기획실 라이브드로잉 “희망의 길”
2018 DDP ACF “barabapa”
2018 국회의원회관 수목장 국회 심포지엄 “한그루의 나무가 되어”
2017 탑골미술관 인생은 “i&i = 괜찮아”
2017 공공미술축제 퍼블릭 X 퍼블릭
2016 서울혁신파크 “i&i = 괜찮아”



작가 홍원표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2018 서울노인영화제 트레일러 <초혼콜라텍>



기획의도

트레일러 초혼콜라텍에 ‘있다connecting’와 ‘있다being’의 의미를 담았다. ‘있다(connecting)’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있다being’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지 보여주하고자 했다. 더불어 트레일러를 보고 나면 예전에 경험했던 장례식 일화,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 죽음을 처음 경험했던 기억 등 다양한 이야기 거리들이 생길 것 이다. 관객들이 이런 이야기 거리를 꺼내며 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이어짐을 바탕으로 서로의 꿈과 기억과 희망, 두려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공식 트레일러 연출 | Forest Ian Etsler(포레스트 이안 엣슬러)



감독 포레스트 이안 엣슬러(Forest Ian Etsler)

2018 서울노인영화제의 트레일러 연출을 맡은 포레스트 이안 엣슬러 감독은 2018년 코리아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피칭 최우수상과 프랑스 FIPA 영화제 및 미국 시카고 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포레스트 이안 엣슬러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는 <한 바퀴: 화가 김미영 다큐>, <Arirang TV “K-phile” 다큐멘터리 시리즈>, <음유시인>, <동心> 등이 있다.

2018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황석정

2001년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로 데뷔한 이래로 최근에는 <살인자의 기억법>, <그것만이 내 세상>등에 출연하며 씬스틸러로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는 배우이다. 최근에는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베일에 싸인 bar주인 이하연 역을 연기했다. 액션부터 코믹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항상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점은 노인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서울노인영화제의 귀감이 된다.



공연예술가 팝핀현준

공연예술가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부부는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시에, 꾸준히 합동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그리스 현지에서 진행된 성화인수 문화 행사에 한국 대표 공연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분야를 조화하여 매번 실험적이고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는 것처럼 서울노인영화제를 통해 청년과 노인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국악인 박애리

2018 서울노인영화제 공식 심사평

“서울노인영화제를 대표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

본선진출작 24작품을 심사하는 것은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노년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진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년 부문 11작품과 청년 부문 13작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달한 노년, 다가올 노년에 대한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먼저 출품해주신 감독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선 심사위원들은 이전 서울노인영화제의 심사 기준처럼 완성도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아이디어 및 사회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을 위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특히나 가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다룬 작품이 증가한 것이 올해의 발견 중 하나입니다. 다큐멘터리적 시선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 속에 녹아든 가족의 애환으로 표현된 작품들은 서울노인영화제의 지향점이기도 한 세대 간 소통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노년 부문의 작품들은 해가 갈수록 그야말로 ‘영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카메라 작동법을 익혀가던 순간들은 어느 덧 장르 영화를 재치있게 변주해내는 고유한 감독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고,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 수화까지 삽입한 작품을 통해서는 영화가 타인과 진정한 대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천만 관객의 시대에 어쩌면 영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노년 부문의 작품들은 배우들의 연기부터 흥미로운 장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역할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며 과소평가된 노년 세대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청년 부문은 영화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노년을 다룬 주제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운 작품들도 있었고, 상투적인 방식으로 노년과 세대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완성도에 비해 아쉬움이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공동체 안에서 세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역사적인 문화 컨텐츠들을 호기롭게 활용하며 젊은 세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연출법이 녹아든 작품들은 서울노인영화제를 찾은 모든 관객분들과 나누고 싶은 순간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영화제에서 사용했던 캐치프라이즈 중 하나는 “멀리서 보면 비극,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 아닌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희극”이었습니다. 미디어에 표현되는 노년의 풍경이 다채롭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꿈꾸는 희극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사회 때문이 아닐까요? 희, 비극이 교차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 지친 순간을 영화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는 점은 영화제라는 문화축제의 장에서 모두가 연대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모든 감독 분들, 연기자 분들, 영화제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상한 감독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다시 한 번 전합니다.

2018 제11회 서울노인영화제 본선 심사위원 일동

2018 서울노인영화제 단편경쟁부문 시상내역

대상

각 부문별 1편 선정 4,000,000원

우수상

각 부문 별 1편 선정 1,000,000원

시스프렌드상

청년과 노인으로 이루어진 관객심사위원단이 선정, 부문통합 3편 선정 각 500,000원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
Committee Members

정장진(문화사·미술·영화평론가,
KACI(한국미술콘텐츠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불문과 대학원 졸업(문학석사, 1984), 파리 제8 뱅센-생드니 대학 문학박사(1995, 현대문학과 정신분석 비평 전공). 현 고려대 불문과 강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문화사가 및 미술, 영화 평론가. 서강대(대학원), 동덕여대, 덕성여대(대학원), 동국대학교(대학원) 등에 출강. 문학, 미술사, 영화, 강의. 광명시 (2008-2009년) 미술사 촉탁강사, 대구광역시 동구청 현대미술 특임강사(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서출판 열린책들 및 한국문화포럼 기획위원. KACI(한국미술콘텐츠연구소) 소장.

김태영(인디컴 대표, 감독)

1958년 서울출생.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와 영화과 졸업. 다수의 방송 다큐멘터리 연출. <베트남 전쟁, 그 후 17년>(1992)로 제29회 백상예술대상 TV극부문상과 한국방송대상을 수상. <세계영화기행> 등 다큐로 한국방송대상 3회, 한국영상음반대상 등 TV다큐부문 최다상 수상과 그랜드슬림 기록 보유. <칸트 씨의 발표회>(1987)로 제28회 베를린영화제 초청.

진모영(다큐멘터리 감독)

1997년부터 다큐멘터리 교양정보 뉴스 프로그램의 PD와 카메라맨으로 활동했다. 2014년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발표하였다. 480만명의 극장 관객을 기록하였고 역대 한국 독립예술영화 전 부문 1위에 올랐다. 100여개 국제영화제와 주요 방송사에 초청되어 대상, 심사위원상, 관객상 등을 휩쓸었다. 2017년, 강원도 동해바다 머구리 잠수부의 삶을 다룬 <올드마린보이>를 통해 탈북 통일 다양성 인생 아버지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베이징국제영화제 국제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최세영(방송, 다큐멘터리 PD)

제일기획 PR, 영화 플래너, sbs프로덕션, 불교텔레비전 PD. 현재 3디렉터채널 독립제작사 대표 피디로 활동 중. <알렉산드로브카 사람들>, <대장경 로드> 5부작, <100세의 딸 나의 아버지 도산 안창호>, 후쿠시마 5년의 생존을 다룬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08년부터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운영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역사회와 사회서비스 그리고 협동의 조건이다. 최근에는 노인과 중장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일자리와 돌봄에 관련한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강석문(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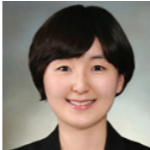
중앙대학원 한국화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독일 함부르크 국제 썸머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소현컨템포러리, 갤러리희, 길담서원, 장흥아트파크, 쌈지갤러리, 인사아트센터> 등 개인전 10회 및 2017년 ‘화화 반례 교감 전’, ‘탕진수목전’, ‘한국화의 자생성 同淸과’, ‘무엇이 보이니! 무엇을 보았니?’, 2016년 ‘겹의미학展’, ‘순수의 정원전’ 등의 단체전이 있다.

김도현(공간기획자)

이탈리아 밀라노 폴리테크니코 공간 디자인 졸업후 전공자와 전문가와의 교류를 도와주는 프랑스 부아부세 워크숍에서 전시 프로그램 기획했다. 현재 한국과 유럽의 디자이너들을 양국에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예술 상업 공간에 맞는 컨텐츠와 인테리어를 제안하는 공간 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정민화(한국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화 이론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시네마테크KOFA 기획과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노인영화제 심사위원 Juries

예선 심사위원

임오정(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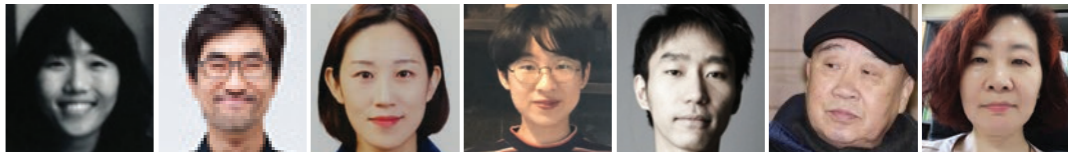
중앙대학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한 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했다. 주요 수상은 2014년 제15회 대구단편영화제 우수상, 2009년 제8회 미장센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주요 작품은 2009년 <거짓말> 각본, 감독 (미장센 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 2010년 <결정적 순간>, <저주의 기간> 미술, 2013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각본, 감독 (대구단편영화제 우수상), 2015년 <대세는 백합>, <첼터> 각본 감독 등이 있다.

김재록(배우)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을,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기를 전공했다. <소공녀>, <1987>, <부산행> 등 68편의 영화에 출연한 바 있다.

임태리(사회복지사)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서 사회교육, 기획, 상담, 연구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담당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왔다. 서울노인영화제 예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디어를 통한 노인인식개선 및 세대통합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본선 심사위원

남순아(작가, 감독)

주요 작품으로 2012년 <흔적>, 2015년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을 연출한 바 있으며, 제35회 서울독립영화제 본선진출, 제15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제11회 인천여성영화제,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16회 대구단편영화제, 제16회 제주여성영화제 초청된 바 있다.

백승화(감독)

계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현재 타바코쥬스에 소속되어 있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2014년 제11회 서울환경영화제 청록상, 2012년 제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객상, 2009년 제35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 등이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오목소녀>, <견기왕> 등이 있다.

김문옥(감독)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하고 충무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2017년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단편경쟁부문 노인감독상, 2013년 제1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디지털 대상 등이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매기의 추억>, <꽃피: 독이 있는 사랑>, <슬픈 결혼 사진> 등이 있다.

배숙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성공회대학교 석사, 목원대학교공공정책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28년차 노인복지 현장근무, (전)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가정봉사원 파견, 고령자취업알선, 치매주간보호, 중풍주간보호, 노인의 집, 밀반찬 배달, 식사 배달, 찾아가는 생신잔치, 무의탁 노인 칠순팔순구순잔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경로당 활성화,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 등,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 강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동국대학교 등 다수 강의 역력이 있다.

서울노인영화제 개요

명칭	2018 서울노인영화제(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
개최기간	2018년 10월 24일(수)~27일(토), 4일간
개최장소	충무로 대한극장 : 개막식, 개막작 상영 SISFF단편경쟁 상영 도슨트초이스 명예의 전당 해외초청작 국내특별장편 노인영상자서전 Know-ing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폐막식, 폐막작 상영
성격	노인 감독의 자유주제 부문과 청년 감독의 노인주제 부문의 단편경쟁작 및 다양한 국내·외 초청 영화로 소통하는 영상문화축제
상영작	장편 7작품, 단편 74작품 총 81편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노인복지센터
주관	서울노인영화제
후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코리아레거시커미티, 신한금융투자, 풀무원푸드머스 어번그룹 바토스, 피플펀드, 아주호텔&리조트, 알토스벤처스, 호스트웨이, 마이박스, 쿨랩코리아

개막식

일시	10월 24일(수), 15:00~
장소	대한극장 5관
프로그램	15:00 개막식 16:00 개막작 상영

개막작 〈꽃손〉 Flower Hands



권순중 | 한국 | 2018 | 80분 | 극영화 | 컬러
중국 국적의 청년 진다. 그를 키운 친할머니는 한국사람이다. 그는 친할머니와 함께 중국에서 자랐다. 진다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선배 정남과 함께 할머니께서 생전 그리워하시던 한국 남해를 찾게 되고 정남의 동생 한별, 그녀의 친구 수진도 함께 남해로 모이게 된다. 집에 있냐고 부르면 “와, 누가 죽었나?”가 인사일 만큼 이별이 먼 이야기만은 아닌 남해 흥현마을의 노인들. 이런 흥현마을에서 진다 일행은 남해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위로를 받으며 남해 생활에 점점 정을 붙이게 된다. 정이 들어 예정보다 오래 남해에 머문 그들은 결국 떠나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폐막식

일시	10월 27일(토), 17:00~
장소	대한극장 5관
프로그램	17:00 시상식 18:00 폐막작 상영
폐막작	2018 서울노인영화제 대상 수상작

개막작

〈꽃손〉

권순중 | 2018 | 80분 | 극영화 | 컬러

SISFF 단편경쟁(24작품)

섹션1. 마음의 주파수

〈풍정라디오〉,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우리 하람이를 위한 할미의 편지〉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

섹션2. 님 두고는 못하여요

〈부탄의 행복은 어디서 왔을까?〉, 〈큰영가〉
〈친구여〉, 〈오늘의 꽃〉, 〈자유로〉

섹션3. 참 따뜻한 이름

〈아버지의 과제〉,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와 아버님〉, 〈엄마와 포포와 나〉
〈조국의 아들(노인의 아리랑)〉

섹션4. 판타스틱 베이비

〈미화원〉, 〈강낭콩 한 살이〉, 〈만나요 우리〉
〈까치까치 설날은〉

섹션5. 오르막의 끝

〈갈〉, 〈두 번째 무수리〉, 〈스트레인저〉
〈단풍이 물드는 시절〉, 〈WISH〉, 〈레시피〉

도슨트초이스(4작품)

〈만나요 우리〉, 〈자유로〉, 〈아버지와 아버님〉
〈미화원〉

SISFF 특별섹션(7작품)

명예의 전당(2작품)

〈슬픈 결혼사진〉, 〈집으로 가는 길〉

시스프렌드 감독특별전(5작품)

〈내 안에 빛을 찾아〉, 〈빛속의 빛〉
〈분꽃: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울산가는... 길〉, 〈함정에 빠진 사람들〉

해외단편(11작품)

해외단편 YOUTH

〈바오밥 나무 껍질〉(브라질), 〈궁지에 몰린 남자〉(스페인)
〈조형〉(멕시코), 〈눈사람〉(노르웨이), 〈꿈꾸는 여행자〉(이탈리아)
〈10억〉(몰도바)

해외단편 SENIOR

〈주말〉(그리스), 〈여름이 가기 전에〉(중국)
〈우리를 둘러싼 세계〉(러시아), 〈기계를 타고 내려온 신〉(바스크)
〈사라지지 않는 빛〉(러시아)

해외장편(1작품)

〈타샤 튜더〉(일본)

마스터클래스(2작품)

대만특별전 “기원 Origin”

〈마운틴〉, 〈랜드〉

국내특별장편(4작품)

〈하동채복: 두 사람의 노래〉, 〈기프실〉, 〈소성리〉, 〈메기의 추억〉

Know-ing

(해외단편 3작품, 국내단편 23작품)

미얀마 특별전 “엄마의, 여성의, 그녀의 삶”(3작품)

〈흑설탕〉, 〈엄마의 집〉, 〈어머니, 정신적 지주〉

예술농부 프로젝트 “완주로컬푸드, 예술이 되다”(3작품)

〈짚레꽃〉, 〈몸의 노래〉, 〈비포 앤 애프터 이시업〉

노인영상자서전 “영화로 기억되는 우리들”(20작품)

삶이 곧 예술이며, 예술이 곧 삶이다! 노년기에 돌아본
인생의 의미를 담은 노인영상자서전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5작품)

“Knowing 영화감독, 영화로 말하다”

〈화양연화〉, 〈말벗〉, 〈그날 밤〉, 〈어르신 통역사들〉
〈내 사랑 내 남편〉

10월 24일(수)

GV 표기는 GV (Guest Visit 감독과 관객의 만남)

시간	대한극장 4관	대한극장 5관	대한극장 6관
13:00	[국내특별장편] 메기의 추억 (104분)	-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Knowing 영화감독, 영화로 말하다 (총 5편, 56분) GV
15:00	[Know-ing] 미얀마특별전 “엄마의, 여성의, 그녀의 삶” (총 3편, 52분)	개막식 개막작 〈꽃손〉 (80분)	[마스터클래스] 대만특별전 “기원 Origin” (총 2편, 80분)
18:00	[해외단편] SENIOR (총 6편, 89분)	[SISFF단편경쟁] 마음의 주파수 (총 4편, 88분)	[해외단편] YOUTH (총 6편, 93분)
20:00	[SISFF] 명예의 전당 (총 2편, 54분)		

10월 25일(목)

시간	대한극장 4관	대한극장 5관	대한극장 6관
13:00	[SISFF단편경쟁] 마음의 주파수 (총 4편, 88분) GV	[SISFF단편경쟁] 참 따뜻한 이름 (총 5편, 85분) GV	[국내특별장편] 소성리 (87분)
15:00	[SISFF단편경쟁] 오르막의 끝 (총 6편, 86분)	[SISFF단편경쟁] 판타스틱 베이비 (총 4편, 84분) GV	[국내특별장편] 기프실 (94분) GV
17:00	[SISFF단편경쟁] 님 두고는 못하여요 (총 5편, 95분)	[Know-ing] 미얀마특별전 “엄마의, 여성의, 그녀의 삶” (총 3편, 52분)	[해외단편] SENIOR (총 5편, 89분)
18:30	[SISFF단편경쟁] 판타스틱 베이비 (총 4편, 84분)	[SISFF단편경쟁] 님 두고는 못하여요 (총 5편, 95분)	[SISFF단편경쟁] 참 따뜻한 이름 (총 5편, 85분)
20:00	[개막작] 꽃손 (80분)		

10월 26일(금)

시간	대한극장 4관	대한극장 5관	대한극장 6관
13:00	[SISFF단편경쟁] 판타스틱 베이비 (총 4편, 84분)	[SISFF단편경쟁] 오르막의 끝 (총 6편, 86분) GV	[SISFF단편경쟁] 님 두고는 못하여요 (총 5편, 95분) GV
15:00	[SISFF단편경쟁] 참 따뜻한 이름 (총 5편, 85분)	[마스터클래스] 대만특별전 “기원 Origin” (총 2편, 80분) GV	[Know-ing] 노인영상자서전 “영화로 기억되는 우리들” (총 10편, 50분) GV
17:00	[국내특별장편] 메기의 추억 (104분) GV	[SISFF단편경쟁] 마음의 주파수 (총 4편, 88분)	[도슨트 초이스] 영화도슨트 초이스 특별상영1 (총 2편, 57분)
19:00	[도슨트 초이스] 영화도슨트 초이스 특별상영2 (총 2편, 55분)	[SISFF단편경쟁] 오르막의 끝 (총 6편, 86분)	[Know-ing] 노인영상자서전 “영화로 기억되는 우리들” (총 20편, 100분)

10월 27일(토)

시간	대한극장 4관	대한극장 5관	대한극장 6관
13:00	[SISFF] 시스프렌드 감독특별전 (총 5편, 118분) GV	[국내특별장편] 하동채복: 두사람의 노래 (105분) GV	[해외장편] 타샤 튜더 (104분) GV
15:00	[해외단편] YOUTH (총 6편, 93분)	-	[Know-ing] 예술농부 프로젝트 “완주로컬푸드, 예술이 되다” (총 3편, 60분) GV
17:00	-	폐막식 SISFF 단편경쟁 수상작 상영	-

※ GV(감독과의 대화)는 감독 스케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단편경쟁 1 Competition for Shorts 1

마음의 주파수 > 총 4편 | 88분

귀 기울이면 서로에게 들리는 마음의 소리들, 영화를 통해 따뜻하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들을 가져본다.

Section 1. Frequency of Heart

The sounds of minds, if we listen carefully each other. You can spend healing time and touching mind warmly through the mov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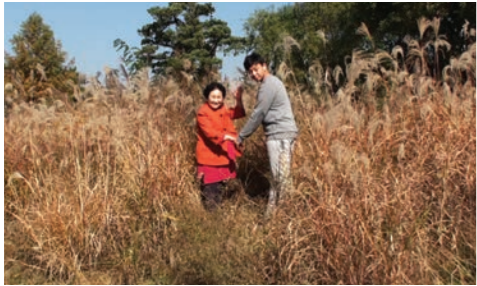
풍정라디오 Little Town Radio

박원달 | 청년 | 2017 | 39분2초 | 다큐멘터리 | 컬러
평생 방송국 근처에도 못가 본 어르신들이 라디오 PD가 되고 DJ가 된다. 삼총밥 짓던 새색시 시절, 만담 공연 보러 시내 나들이 가던 처녀시절 등 지난 추억을 떠올리는 사연, 장애를 가진 아들의 결혼 실패 후 1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며 집에만 있던 어머니의 하소연... 라디오 하나로 지루한 일상, 굳었던 표정, 닫혔던 마음이 밝고 유쾌하게 바뀐 풍정 라디오의 기적 같은 변화를 담담히 담았다.



감독 박원달 Park Won-Dal
박원달 감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난민, 대안학교 학생, 쪽방촌 주민, 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공익성과 실험정신이 뛰어난 작품을 제작해 왔다. 주요작품으로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2001), <평에 사는 사람들>(2004), <라디오 뮤지컬 자유학교>(2005), <한국in 한국人>(2009), <심심 고향별곡>(2012), <우리엄마>(2015) 등이 있다.

The elders who have not been nearby the broadcasting station become a radio PDs and DJs. They broadcast their naive daily routines and small hidden stories. The story contains the changes from their boring life, stiffy face and closed mind to delightful and pleasant life.



감독 강복녀 Kang Bok-Nyeo
강복녀 감독은 부천시니어멘토스쿨 3기, 6기를 수료했으며 작품으로 <즐거운 삶>(2015), <행복한 나>(2016), <더위를 피하는 우리만의 방법>(2016)이 있다.

우리 하람이를 위한 할미의 편지 Grandmother's Letter for My Grandchildren Haram

강복녀 | 노인 | 2017 | 7분28초 | 다큐멘터리 | 컬러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하람이. 엄마에게 버림받은 하람이를 고모가 정성으로 키우며 하람이는 조금씩 장애를 극복해 나간다. 할머니의 생일날, 편지를 읽어주는 하람이를 보며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져내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Haram who have intellectual disabilities, He was abandoned by his mother But he successfully fights physical disabilities with his family. On his grandmother's birthday, she can not stop crying While haram reading a letter for her.



감독 방성준 Bang Sung-Jun
방성준 감독은 중앙대학교 영화학과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주요작품으로는 <목련에 대하여>(2017)가 있으며, 2017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Passing Over the Hill

방성준 | 청년 | 2018 | 24분 | 극영화 | 컬러
요절한 아들의 시집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으로 한글을 공부하던 정숙은 시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필사하던 날, 서울에 있는 아들의 대학교를 찾는다.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들의 흔적과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정숙은 그 언덕을 찾고 싶다.

The day, Jung Sook was studying Hangul with transcribing the last page of her dead son's poetry, 'Passing Over the Hill'. She visits his university and faces his traces and the people who remember him. Jung Sook wants to find the hill.



감독 신지훈 Shin Ji-Hoon
신지훈 감독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MFA 재학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보고싶은 마음>(2014)이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우수작품상(2017), 제15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2017), 제4회 사람사는세상영화제 우수상(2017), 제6회 경찰인권영화제 감독상(2017), 제7회 고양스마트영화제 경쟁부문(2017), 제20회 쇼트쇼츠국제단편영화제 아시아경쟁부문(2018, 일본)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제16회 피렌체 한국영화제(2018, 이탈리아)에 초청된 바 있다.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 Line

신지훈 | 청년 | 2017 | 17분 | 극영화 | 컬러
남자는 광고 전단지를 돌리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고 전단지를 돌리던 중 문이 살짝 열려있는 집을 발견한다. 남자는 저녁 값만 훔쳐 나오자는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간다. 집 안에는 조용하고 굳게 닫힌 문이 있다. 건진 것 없이 나오려던 남자는 닫힌 문을 열어보고자 한다. 억지로 굳게 닫힌 문을 열자 자살한 노인과 여자 아이의 시신이 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울린다.

The man manages his living with leafleting. Meanwhile, he finds a house with a slightly opened door. He decides to enter and steal some money for a meal. However, there was nothing but another closed door inside. As he was about to leave, he makes his mind up to open it. When he force to open, there were suicided bodies of an old lady and a girl. At the time, someone is ringing the doorbell...

님 두고는 못하어요 > 총 5편 | 95분

당신의 손길이 닿으면 시인이 된다? 내 삶을 한 편의 시로 만들어주는 당신을 위한 영화

Section 2. Do Not Anything without you

With your touch, I can become a poet. The movie which makes out lives a poem our



감독 장남진 jang Nam Jin

장남진 감독은 명지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여 게티이미지코리아 소속 작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제작단 감독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작품 및 경력으로는 2017년 시니어 영상창작 프로젝트

〈속종과 그의 여인들〉 최우수상, 2017년 제1회 한옥영상 공모전 〈정와마를〉 입선, 2016년 고양스마트영화제 〈불행한 왕들의 슬픈 안식처 서상릉〉 고양상, 2016년 KBS 제1TV 열린채널 〈오산 행복한 학교〉 방영, 2015년12월 MBN, 시청자 미디어재단 주최 〈효릉제향〉 공동장려상 등이 있으며, 2013년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 본선에 작품 〈흥국사〉로 진출한 바 있다.



감독 최아경 Choi Agyeong

최아경 감독은 한국영상작가 협회 회원 및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제작단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 및 경력으로는 2018년 Croatia Pozaga에서 제 26회 1분 영화제에 초대받은

바 있으며, 2016년 제 47회 한국 영상제 〈느즈막 자그마한 꿈〉 대상, 2015년 고양스마트 영화제 〈나의 어머니〉 고양상, 2015년 MBN 시청자 미디어재단 주최 〈효릉제향〉 공동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탄의 행복은 어디서 왔을까 Where does Bhutan's Happiness Come From?

장남진, 최아경 | 노인 | 2018 | 28분30초
다큐멘터리 | 컬러

오늘날 평화롭고 행복한 부탄은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탄 왕들이 있어서이다. 국내에서 3명의 부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오늘의 부탄이 있기까지 역사와 그들만의 독특한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진단한다. 부탄의 문화와 역사 정체성을 소개하며 비록 국민소득은 적은 나라이나 당당한 그들의 모습은 왕과 국민의 신뢰와 화합 속에서 싹튼 평화롭고 행복한 국가임을 보여준다.

Bhutan's kings have been working for today's peaceful and happy country. The three national experts are conversing about their histories and unique policies that made current Bhutan, and also the ways for future direction. It introduces Bhutan's culture and historical identity. The king and the public are harmonized in trust, and it shows that the country is peaceful and blessed despite the low national incomes.



감독 박은희 Park Eun Hee

박은희 감독은 2012년 성남시민영상 제작단에 입단하여 2013년 성남미디어 페스티벌 공모전 〈성남시와 40년 세월을 함께한 성호시장〉 우수상, 2016년 성남 미디어 페스티벌 공모

전 〈탄천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상, 2016년 전국 시청자미디어 〈작은 관심이 우리 마을을 바꾼다〉 장려상, 2016년 한국영상문화제전 〈탄천의 주인은 누구인가〉 최우수상, 2017년 성남 미디어 페스티벌 공모전 〈굿바이 금광동〉 대상 수상 외에 아름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청자 열린 세상에 다수 출품한 바 있다.



감독 이종환 Lee Jonghwan

이종환 감독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성남미디어센터 실버영상제작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 8월부터는 성남미디어센터 실버영상제작

활동의 일환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10월부터는 성남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영화를 제작하였다.

큰ैया Dear My Eldest Sister

박은희 | 노인 | 2018 | 10분11초 | 다큐멘터리 | 컬러
우리 큰언니, '큰ैया(큰 언니를 부르는 말)'는 9남매 맏이로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했다. 언니는 나에게 부모나 마찬가지였다. 언니의 죽음을 통해 내 삶의 결정권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언니를 이제 어렵듯이 이해하게 되며 언니가 선택한 삶의 결정권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그동안 마음 한 구석에 얹힌 것이 자리하고 있던 큰ैया. 이제 언니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큰ैया 안녕~

My eldest sister, 'Keun-Eung-ga (a way of calling older sister 'unnie)' was the first one of nine siblings, has handled all the works of our family. She was like a parent to me. Her death made me thinking about my own life decision. I understand a little bit about the decisions of her. In the meantime, She was sitting in the corner of my mind. Now, I can say "Goodbye, si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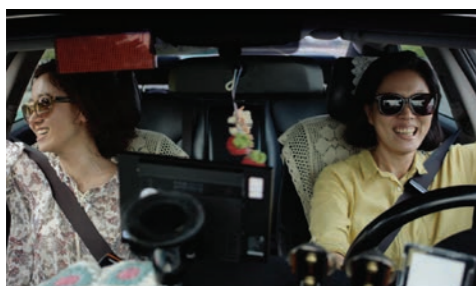
친구여 Dear Friend

이종환 | 노인 | 2017 | 17분32초 | 극영화 | 컬러
상훈과 재섭은 넉넉하지 못했던 청년 시절부터 사귀어온 오랜 친구이다. 각자 큰 회사를 다니다 은퇴한 두 사람은 심심치 않게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어느날 재섭은 전 직장에서 임원까지 지내고 평소 알뜰한 상훈이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 영준이 다니는 증권회사에 투자해 달라고 부탁한다. 인생의 후반기, 절망의 상황에 놓인 두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로 감싸 안는다.

Sang-Hun and Jae-Seob are old friends since when they were having harsh time. They often spend their time together after retired major company. One day, Jae-Seob found out that Sang-Hun has been in board member in his old job and has saved a lot of money. he asks Sang-Hun to invest his son, Yeong-Jun's security company. In the second half of life, two friends in a desperate situation, understand each other as true friends.



감독 강여실 Kang Ye-Sil
강여실 감독은 성남미디어센터 실버 제작단에서 Lucky7 단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3년 전 영화를 처음 알게 되었다. 미디어 강의 첫 시간부터 빠져들었고 영화를 만들면서 삶을 되돌릴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한다. 아마도 총무로에서 살지 않았을까? 작년에 '도전!80' 연출하여, 감독, 편집, 성남미디어센터 공모전에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인물 다큐멘터리 <오늘의꽃> 기획 및 연출 하였다. 스스로 놀라울 때가 있을 만큼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 주연, 조연, 엑스트라, 관객 동원, 장소협찬 등..



감독 황슬기 Hwang Seoul-Ki
황슬기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 <밀어드려요>, <미아> 등이 있으며, 제 22회 2017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제 43회 2017 서울독립영화제 단편경쟁, 제 8회 2017 광주여성영화제, 제 19회 2017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오늘의 꽃 Flower of a Day

강여실 | 노인 | 2018 | 15분47초 | 다큐멘터리 | 컬러
혼자가 되신 80대 할머니가 지난 세월 성남에 살면서 성남에서 벌어들인 재산을 성남시에 기증하신다는 사후 유산기증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려서부터 집안을 책임졌으며 결혼하고도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에도 열심히 살아오신 홍계향 어르신 인생 이야기.

It is the story about the 80s old lady who donated her after-death legacy to Seongnam city because she has lived and earned in Seongnam. Elderly 'Gye-Hyang Hong' who has been a breadwinner of the family since childhood and has lived diligently in the violence from her husband who had Othello syndrome.

자유로 FREEWAY

황슬기 | 청년 | 2017 | 18분57초 | 극영화 | 컬러
택시운전사인 여진은 한국에서의 정든 삶을 정리하고 중국에 있는 딸과의 새로운 삶을 꿈꾼다. 중국으로의 출국 날, 여진은 오랜 친구인 주희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지만 주희의 연인인 태수가 두 사람을 방해한다. 여진은 길 위에 주희를 두고 혼자 공항으로 떠난다. 어렵게 도착한 공항. 과연 여진은 무사히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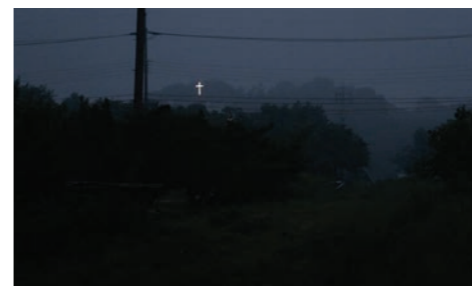
A taxi driver, 'Yeo-Jin' is dreaming of the new life with her daughter in China, and leaving her dear life in Korea. On the day of departure to China, Yeo-Jin was going to the airport with her old friend Ju-Hee. However, Tae-Su, the lover of Ju-Hee interrupt them. Yeo-Jin leaves Ju-Hee on the way and heads to the airport alone, Could she succeed to departure in China.

참 따뜻한 이름 > 총 5편 | 85분

언제, 어디서나 내 곁을 지켜줄 그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

Section 3. Always Be With You

Whenever, Wherever all the time with me, FAMILY



감독 김유진 Kim Yu-Jin
김유진 감독은 1993년에 부산에서 태어났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작품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며 겪는 내적 갈등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젓가락만으로 스테이크를 먹으며 우여곡절하는 <Don't forget to pray(기도 잊지 말거라)>(2014) 퍼포먼스 작품을 독일 Cux-hafen의 갤러리에서 전시하였다.

우리 아버지께 Prayer to Our Father

김유진 | 청년 | 2018 | 11분15초 | 실험영화 | 컬러
전라북도 군산시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30퍼센트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 그 곳에 위치한 상평교회는 세워진지 어느덧 70년이 다 되어간다.. 35명 남짓한 신도의 대부분이 노인이며 그 중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수십년의 세월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모두에게 점심식사를 차려 대접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이 작품은 노인사회에 뿌리내린 한국기독교의 모습을 여성노인의 음성을 통하여 담담히 드러내며 전통사회 구성원들과 종교의 역할을 바라본다.

The proportion of Christian population in Gunsan City, Jeollabuk-do is 30 percent, the highest in Korea. The Sangpyeong Church in Jeollabuk-do is about 70 years old. Most of the 35 people are elderly, and many of them are women. They have been worshiping and serving lunch every Sunday for many years. What are these women praying to their 'father'? The film reveals Korean Christianity in the seniors and the role of religion for the members of traditional society through the voice of an old lady.



감독 이체 I-che
이체 감독은 중앙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연기연습>(2009), <엄마의 편지>(2016) 등이 있다.

아버지의 과제 Father's Assignment

이체 | 노인 | 2018 | 22분 | 극영화 | 컬러
무등산을 올라가 숲속을 몰래 파헤치며 뭔가를 찾는 60대 초반의 한 남자와 38년 전 군인들에게 죽은 고교생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무등산을 찾아 해매는 한 치매 노인이 어느 날 극적으로 마주친다.

A man in his early 60s climbed Mt. Mudeung to secretly dig the forest and find something. And an elderly man who had dementia thought his teenage son has been killed by soldiers 38 years ago was alive. One day, they dramatically meet each other.



감독 김애송 Kim Ae-Song
김애송 감독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성남문화의 집 영상 편집 동아리 회원 및 성남미디어센터 실버영상제작단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청년농업인 박가영>(2017), <흥을 일깨우는 사람 강승호>(2016), <책 읽는 엄마들>(2017), <맘스노리>(2018) 등이 있다.

아버지와 아버님 Father and Father-in-Law

김애송 | 노인 | 2018 | 14분25초 | 극영화 | 컬러
아내를 보내고 혼자 살아가던 친정아버지는 병을 얻고 딸집으로 온다. 친정아버지는 시아버님과 의견 충돌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진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불임성 좋은 성격으로 시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다가간다. 유교적 사상으로 융통성 없이 살아가던 시아버지는 애잔한 마음을 느끼며 사돈에게 동화되어 간다. 서로가 멀리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두 사람은 끈끈한 부부의 정을 느끼며 힘차게 살아간다.

The father, who has lost a wife and lives alone. Gets ill and comes to his daughter's house. But he spends the days of conflict with father-in-law. One day, he provoked father-in-law's Achil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ets worse.



감독 백승영 Baek Seung-Young
백승영 감독은 서라벌 예술대학을 졸업하여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언론사에서 근무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황혼을 다듬는 사람들>, <온천천의 사계>, <어느 노병의 소망>의 다수 있다.

조국의 아들(노인의 아리랑) The Son of Our Country

백승영 | 노인 | 2017 | 19분 | 다큐멘터리 | 컬러
한국전쟁 당시 1950년, 학생 때 군에 입대한 이기춘 하사가 황해도부근으로 북진중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갇은 고초를 겪고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하여 조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언제나 북쪽에 두고 온 큰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치매가 오게되고 그리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지금도 노인은 본인이 자작한 아리랑을 시도 때도 없이 병상에서 읊조리는데 분단된 조국의 실상을 노인으로부터 상기하게 된다.

In 1950, the Korean War. Staff Sergeant, Lee Ki-Chun who has joined the army during school, became a prisoner of the North Korean army on his way to the north to Hwanghae Island by the Chinese army's intervention. However, through all hardships, he has returned to his home country. He always felt sorry for the eldest daughter who has been left in the north, eventually, he goes to the nursing hospital by dementia. He still sings his own Arirang on his bed. The story is reminding about the fact of country's division from an old man.



감독 류동길 Ryu Dong-Kil
류동길 감독은 국어국문학과 중퇴 후 들어간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단편 <김 선생의 어떤 하루(A Day In The Life of Mr. Kim)>, <등산남녀(Strangers On A Mountain)>을 연출한 바 있다.

엄마와 포포와 나 Mom, Popo and Me

류동길 | 청년 | 2018 | 18분 | 극영화 | 컬러
정석은 미숙이 얻어온 로봇 청소기 포포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Jeong-Seok feels uneasy because of the robotic vacuum cleaner, Popo, brought by Mi-Sook.

판타스틱 베이비 > 총 4편 | 84분

일상의 소소한 변화가 한 사람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Section 4. Fantastic Baby

Have you ever thought about how life can change on the smallest thing?



감독 김보원 Kim Bo-Won

김보원 감독은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재학 중이다. 주요 작품 및 수상 경력으로는 2017 제27회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거지 분노의 추

적자> 공식 상영, 2017 제27회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공식 상영 <천하장사를 좋아하세요?>, 2015 고시촌 단편 영화제 금상 수상 등이 있다.

미화원 The Cleaner

김보원 | 청년 | 2017 | 19분50초 | 극영화 | 컬러

은퇴 후, 세상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한 할배. 세상을 걱정하기 전에 집안 청소나 하라며 할멈의 강도 높은 구박을 받는다. 할멈이 무서워 집안 청소를 시작하는 할배. 그 순간, 할배는 깨닫는다. 자신이 청소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After retirement, The grandpa wishes the world to be clean. The granny gets hard on him to clean up the house before worrying about the world. Scared grandpa starts to clean the house. At that moment, he realizes. The fact that he has a big talent in cleaning!



감독 김태경 Kim Tae-Kyung

김태경 감독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화제작을 전공했으며,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강낭콩>, 제11회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스케치북>, 제15회 전북독립영화제 온고을경쟁부문 <나도 살고싶다>를 상영한 바 있다.



감독 이인숙 Lee In-Suk

스포츠 관련 잡지사에서 취재와 사진 기자로 근무하며 편집부일 까지 30여 년 간 근무하였으며 취미활동으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개설된 웹 드라마 제작 동아리에 참가하여 같은 동아리에서 만든 본 작품이 첫 작품이다.

강낭콩 한 살이 The Little Bean

김태경 | 청년 | 2018 | 20분28초 | 극영화 | 컬러

엄마의 재혼으로 아픈 할머니에게 잠시 맡겨져 같이 살고 있는 수아. 강낭콩 꽃이 필 때쯤에 데리러 온다는 엄마의 말에 수아는 강낭콩을 열심히 돌본다.

Little Soo-ah lives for the time being with her sick grandmother. When her bean flower in the small pot blossoms, Soo-ah will go back to her mom and the mom's new husband. That's what mom has promised.

만나요 우리 Before Leaving

이인숙 | 노인 | 2017 | 18분 | 극영화 | 컬러

나이 여든을 바라보는 변민식씨는 꽃사진을 잘 찍는다. 그리고 요즘은 마을 복지관에서 <동영상 촬영과 편집>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이 강좌에, 민식은 어마어마한 열정을 쏟는 중이다. 도대체 왜? 이 강좌의 선생님은 이십 대 중반의 여강사, 이수정씨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여기 저기 이력서를 내보지만 부르는 곳이 없다.

Mr. Min-Sik, who about 80 years old, takes nice pictures of flowers. And nowadays, he is taking a <video shooting and editing> class at the community relief center. Min-Sik works hard for the lecture even though it is not easy for young people. Min-Sik nitpicks in the class for nothing and Soo-Jung, the instructor, also responds strongly.



감독 이윤화 Lee Yun-Hwa
이윤화 감독은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졸업했으며, <승준의 휴가>(2017)를 연출했다. 제 19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제 17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 작품이 상영된 바 있다.

까치까치 설날은
New Year's Day

이윤화 | 청년 | 2018 | 25분41초 | 극영화 | 컬러
설 명절이 되자, 혼자 살고 있는 엄마의 집으로 자녀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화기애애해 보이는 명절풍경 속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말과 행동들이 의도치 않게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조용히, 또 웃으며 지나갈 수 있었던 설날 명절의 하루가 조금씩 소란스러워진다.

As the Lunar New Year's day comes, the children gather in the house of their mother who lives alone. In the harmonious atmosphere, the words and the reactions from each family members start to unintentionally cause conflicts. The Lunar New Year's day that could be able to smile is getting loud.

오르막의 끝 > 총 6편 | 86분

과거와 현재, 지금의 삶과 다가올 미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Section 5. The End of the Uphill

A moment to think about How to make meaning my Past, Now, upcoming Future



감독 김유준 Kim Yu-Jun
중앙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학과 전문사에 재학 중이다. <복도발령 3개월차>(2015)가 20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에 초청된 바 있다.

스트레인저
Stranger

김유준 | 청년 | 2018 | 13분35초 | 극영화 | 컬러
벽화를 그리던 소녀 소라는 처음보는 아저씨를 만난다. '잠깐 갈까? 아저씨 차'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았는데... 소라는 곤란하다.

So-Ra, the girl who paints the wall, meets the strange man. 'would you like to go to my car for a sec?' So-Ra is told not to follow strangers. she is in a difficult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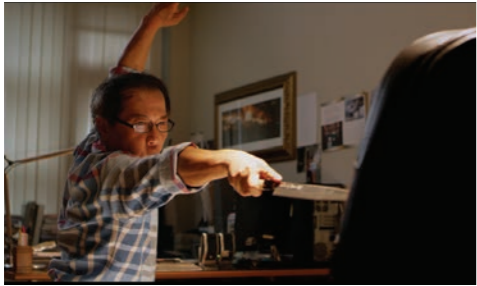


감독 장세언 Jang Se-Eon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실버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대해 알게 되어 이번 영화를 찍게 되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 및 영상편집을 배워 즐겁게 이번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단풍이 물드는 시절
Be Tinged
with Autumnal Tints

장세언 | 노인 | 2017 | 18분18초 | 극영화 | 컬러
서울생활을 하던 부부가 귀촌하게 된다. 좋을것만 같았던 시골 생활 그러나 그리 평탄치만은 않다.

The Couple who have been living in Seoul city return to their country home. The country life that seemed good for them, however, it is not so smooth as they expected.



감독 윤현호 Yun Hyun-Ho
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미디어학을 전공하고 현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연출을 전공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09년 제3회 충무로국제영화제 cine-student 부문 〈카푸치노〉본선진출, 2011 상록수다문화영화제 〈고맙이들〉본선진출 한 바 있으며, 네이버 웹툰 '이말년 시리즈' 원작인 〈비트박스 바이러스〉(2011)를 연출, 그 외에도 〈견우의 노래〉(2016) 등을 연출했다. 2015 대한체육회 시나리오 공모 최우수작 〈떡〉(2016)이 SBS 신년 UHD 특집극으로 방영되었으며, 2016 제1회 화책연합 시나리오 공모대전 웹영화 부문 〈엄마의 남친〉우수상, 2016 한국콘텐츠진흥원 동계올림픽 이야기 창작공모전 〈절호의 찬스〉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칼 Knife

윤현호 | 청년 | 2017 | 13분2초 | 극영화 | 컬러
퇴임을 앞두고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던 영화과 교수 준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에게 뜻밖의 황당한 선물(사시미 칼)을 받는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칼'의 날카롭고 빛나는 자태에 점점 빠져드는 준만. 그렇게 '칼'이 삶의 활력 그 자체가 되어가던 그때, 제자가 다시 찾아온다.

A professor of film department, Jun Mun, is spending his daily life in a state of torpor, waiting for retirement. One day, he got an unexpected gift (sashimi sword) from an unexpected student. After the day, Jun-Man gets attracted to the sharp and shiny appearance of the 'sword'. When it becomes the vitality of his life, the student comes back to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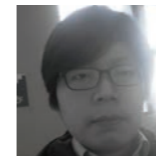


감독 박현상 Park Hyun-Sang
춘천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직 하였으며, 퇴임 후 춘천문화원 주관 문화유산해설사 3년 수료, 숲 생태해설 5년, 마술 교육지도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춘천동부 노인복지관에서 마술 강사로서 지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 민간기록 조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영화제 소식을 듣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화를 제작했으며, 이번 작품이 공식적인 첫 감독 데뷔작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작품 제작에 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무수리 Second Maid

박현상 | 노인 | 2018 | 22분42초 | 극영화 | 컬러
85세 노랭이왕과 그의 두 번째 아내 72세 무수리. 매일 손 하나 까닥 하지 않는 남편에게 적응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심 서운함과 외로운 마음이 쌓인 상태이다. 급기야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아내에게도 쪼잔하게 각서를 써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남편. 그 모습에 아내는 드디어 폭발하고야 마는데...

85 years old husband and his 72 years old second wife. She is used to living with her husband who does not do anything, but, deep inside her, she feels sadness and loneliness. The wife finally explodes at the small-minded husband who lends money to her with a note.



감독 신제민 Shin Je-Min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대학원에 재학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스테이!〉(2015)를 연출하였으며, 2015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부문, 2015 미장센 단편영화제, 비정성시 부문, 2015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국제단편영화제, 2015 대전독립영화제, 2016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에 초청되었으며, 2015 인천독립영화제 단편경쟁 부문 대상, 2015 SNS 3분영화제 웹드라마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WISH

신제민 | 청년 | 2017 | 15분 | 극영화 | 컬러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병실 천정만을 바라보고 있다. 자매는 그런 노인의 병원비 때문에 싸우기 시작한다. 노인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손자는 노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The old man can do nothing but only looking at the ceiling of the hospital room. The sisters begin to fight because of the hospital expenses for this old man. The elder wants to say something. His grandson who was watching the situation by the side starts to find a way to communicate with him.



감독 김경석 Kim Kyung-Seok
〈승부〉(2017)를 연출하여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단편경쟁 부문, 제12회 대한민국 대학영화제 단편경쟁 부문에서 상영된 바 있다.

레시피 Recipe

김경석 | 청년 | 2018 | 3분47초 | 극영화 | 컬러
길용은 큰 수술을 앞두고, 아내 금남이 좋아하는 요리의 조리 영상을 찍어둔다. 길용은 결국 유명을 달리하고, 금남은 혼자 그 영상을 보며 같은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Gil-Yong prepares a cooking video of his wife, Geum-Nam's favorite dish, ahead of his major surgery. Gil Yong eventually passes away, Geum-Nam sees the video and makes the same dish alone.

도슨트 초이스 > 총 4편

영화도슨트 초이스 특별상영1 > 57분

영화도슨트 초이스 특별상영2 > 55분

전문교육을 받은 영화도슨트 어르신들이 직접 영화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관객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영화도슨트 어르신들이 단편경쟁 작품 중 4편을 선정하여 대화를 이어갑니다.

Docents' Choice

The panel has selected works of young directorrs that have been screened at previous festivals and will offer their critiques. Through the sharing of their varying viewpoints and opinions, this section offers an opportunity for members of different generations to examine the impact of cinema on the theme of aging.



감독 이인숙 Lee In-Suk
스포츠 관련 잡지사에서 취재와 사진
기자로 근무하며 편집부일 까지 30여
년 간 근무하였으며 취미활동으로 판
교종합사회복지관에 개설된 웹 드라마
제작 동아리에 참가하여 같은 동아리
에서 만든 본 작품이 첫 작품이다.

만나요 우리 Before Leaving

이인숙 | 노인 | 2017 | 18분 | 극영화 | 컬러

나이 여든을 바라보는 변민식씨는 꽃사진을 잘 찍는다. 요즘은 마을 복지관에서 <동영상 촬영과 편집>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이 강좌에, 민식은 어마어마한 열정을 쏟는 중이다. 도대체 왜? 이 강좌의 선생님은 이십 대 중반의 여강사, 이수정씨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여기 저기 이력서를 내보지만 부르는 곳이 없다.

Mr. Min-Sik, who about 80 years old, takes nice pictures of flowers. And nowadays, he is taking a <video shooting and editing> class at the community relief center. Min-Sik works hard for the lecture even though it is not easy for young people. Min-Sik nitpicks in the class for nothing and Soo-Jung, the instructor, also responds strongly.



감독 황슬기 Hwang Seoul-Ki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단편 <밀어 드려요>, <미아> 등이 있으며, 제 22 회 2017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제 43회 2017 서울독립영화제 단편 경쟁, 제 8회 2017 광주여성영화제, 제 19회 2017 서울국제 청소년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자유로 FREEWAY

황슬기 | 청년 | 2017 | 18분57초 | 극영화 | 컬러
택시운전사인 여진은 한국에서의 정든 삶을 정리하고 중국에 있는 딸과의 새로운 삶을 꿈꾼다. 중국으로의 출국 날, 여진은 오랜 친구인 주희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지만 주희의 연인인 태수가 두 사람을 방해한다. 여진은 길 위에 주희를 두고 혼자 공항으로 떠난다. 어렵게 도착한 공항. 과연 여진은 무사히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A taxi driver, 'Yeo-Jin' is dreaming of the new life with her daughter in China, and leaving her dear life in Korea. On the day of departure to China, Yeo-Jin was going to the airport with her old friend Ju-Hee. However, Tae-Su, the lover of Ju-Hee interrupt them. Yeo-Jin leaves Ju-Hee on the way and heads to the airport alone, Could she succeed to departure in China.



감독 김애송 Kim Ae-Song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성남문화의 집 영상 편집 동아리 회원 및 성남미디어센터 실버영상제작단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청년농업인 박가영>(2017), <흥을 일깨우는 사람 강승호>(2016), <책 읽는 엄마들>(2017), <맘스노리>(2018) 등이 있다.

아버지와 아버님 Father and Father-in-Law

김애송 | 노인 | 2018 | 14분25초 | 극영화 | 컬러
아내를 보내고 혼자 살아가던 친정아버지는 병을 얻고 딸집으로 온다. 친정아버지는 시아버님과의 의견 충돌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진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불임성 좋은 성격으로 시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다가간다. 유교적 사상으로 융통성 없이 살아가던 시아버지는 애잔한 마음을 느끼며 사돈에게 동화되어 간다. 서로가 멀리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두 사람은 끈끈한 부부의 정을 느끼며 힘차게 살아간다.

The father, who has lost a wife and lives alone. Gets ill and comes to his daughter's house. But he spends the days of conflict with father-in-law. One day, he provoked father-in-law's Achil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ets worse.



미화원 The Cleaner

김보원 | 청년 | 2017 | 19분50초 | 극영화 | 컬러
은퇴 후, 세상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한 할배. 세상 걱정하기 전에 집안 청소나 하라며 할మ్의 강도 높은 구박을 받는다. 할మ్이 무서워 집안 청소를 시작하는 할배. 그 순간, 할배는 깨닫는다. 자신이 청소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After retirement, The grandpa wishes the world to be clean. The granny gets hard on him to clean up the house before worrying about the world. Scared grandpa starts to clean the house. At that moment, he realizes. The fact that he has a big talent in cleaning!



감독 김보원 Kim Bo-Won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재학 중이다. 주요 작품 및 수상 경력으로는 2017 제27회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거지 분노의 추적자> 공식 상영, 2017 제27회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공식 상영 <천하장사를 좋아하세요?>, 2015 고시촌 단편 영화제 금상 수상 등이 있다.

명예의 전당 > 총 2편 | 54분

지난 10회 서울노인영화제의 대상 수상작 두 편을 만나본다.

The Hall of Fame

The hall of fame presents a film winner of the 10th SISFF



슬픈 결혼사진 Sad Marriage Picture

김문옥 | 2017 | 39분42초 | 극영화 | 컬러
요양병원으로 떠나야하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손자의 시선을 통해 고령화 사회 속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조명한다.

The film highlights the meaning of family love and happiness in this aging society through the view of a grandson who watches his grandmother leave for a nursing home.



감독 김문옥 Kim Moon Ok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하고 충무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2017년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단편경쟁부문 노인감독상, 2013년 제1회 서울구로국제 어린이영화제 디지털 대상 등이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메기의 추억>, <꽃피: 독이 있는 사랑>, <슬픈 결혼사진> 등이 있다.



집으로 가는 길 On the Way Home

김영석 | 2016 | 14분56초 | 극영화 | 컬러
산다는 것은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어렵듯이 알았을 때 밀려오는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의 감정을 보여준다.

Living is getting closer to the death.
The film captures the emotions of regret, sense of going on and the acceptance of life before death.



감독 김영석 Kim Young-Seok
영화 보는 것, 만드는 것이 좋아서 하고 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이 끈을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버텨보고 싶다.

시스프렌드 감독특별전 > 총 5편 | 118분

서울노인영화제에 꾸준히 출품해온 감독들의 신작을 만나보는 시스프렌드 감독 특별전.

SISFF Friend Director Section

SISFF friend Director Section presents a the sequel films of SISFF directors



감독 김제건 Kim Je-Geon
1970년대 TBC-FM에서 2시간짜리 음악프로그램의 PD와 DJ를 하며 방송제작을 했으며,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 전자회사 근무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운영하였다.

2010년부터 프리랜서기자로 다시 방송계에 돌아와 현재 TV 뉴스리포터와 다큐멘터리를 1인 제작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 2016년 제9회, 2017년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본선에 진출한 바 있다.

내 안의 빛을 찾아 Finding the Light Inside Me

김제건 | 2017 | 18분23초 | 다큐멘터리 | 컬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학교의 고교과정을 졸업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마사, 침술사 등의 직업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반면, 음악에 소질이 있는 몇몇 학생들은 어렵고 힘든 음악연습을 통해 직업 연주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자신 안의 빛과 재능을 열심히 찾아가는 시각장애인의 평범하지 않은 경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살펴본다.

Most students who graduate from a school for the blinds become as a masseur, acupuncturist, and other professions. Some students who are talented at music, want to live as professional musicians through tough and difficult exercises. The movie presents in the omnibus form, it shows unusual blinds who try to find their own lights and talents.



감독 차경미 Cha Kyung-Mi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과를 중퇴하였으며, 여고시절에 사진반에서 암실 작업 등 사진을 처음 배우고 사진관련 책과 전람회를 통하여 계속 사진에 관심을 가졌고 현실과 예술을 넘나드는 사진의 세계가 정말 좋았다고 한다. 1999년부터는 동영상에 관심을 가졌고 촬영하면서 책을 보며 편집을 익히고 영상을 만들었다. 2012년부터 ktv국민기자, 2016년부터는 tbs시민리포터로서 지금까지 150여개의 리포트를 제작하였고, 2017년에는 제 2기 tbs 시민우수리포터로 선정되었다. 주로 기획 구성 글쓰기와 내레이션까지 1인 미디어 작업을 하며, 그 중 <조각모음>은 2017년 서울노인영화제에 출품하여 본선에 진출했다.



감독 안인현 Ahn In-Heon
퇴직 후 2009년 영등포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2012년에 (미디어클럽 통) 동호회를 만들어 회원 12명으로 정기교육 외에 매주 금요일 자체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년 단편영화 1편씩 제작하고 있다. 그동안 <여보 사랑해>, <소녀와 할아버지>, <에이 씨>, <홍시 김치> 등을 제작하였으며, 현재도 미디어클럽 통,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분꽃: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Korean Spice Viburnum and Moon Light

차경미 | 2018 | 23분41초 | 다큐멘터리 | 컬러

남편과 나를 달과 분꽃으로, 강원도 봉평 이효석생가에서 떠오르는 달, 그것을 닮았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You gave me a call when the moon is up.
My husband and I wanted to live a life that feels like the moon and the flower, The moon rising from Lee Hyo-Seok's birthplace in Bongpyeong, Gangwon-do.

빛속의 빛 A Light in the Rain

안인현 | 2017 | 20분17초 | 드라마 | 컬러

교직 생활을 하는 같은 처지의 남녀가 아이 하나씩을 데리고 재혼을 했다. 아이들을 잘 키우며 대학을 보내고, 졸업 후에는 결혼 시켜서 살림을 내준다. 두 부부는 교편생활로 교장까지 승승장구 하며 행복한 생활을 한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왕창 망하는 바람에 집까지 날려버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하지만 고부 갈등으로 인해 시어머니는 딸네 집으로 들어가 각각 떨어져 살다가 외로움과 허망함에 밖으로만 떠도는 신세가 되는데...

A man and a woman in the same position as a teacher are remarried. They raise their children to college and marriage, furthermore, they are promoted to the principal and live a happy life. After the retirement, they started a business as a retirement pension but it has ruined and they went into their son's house. However, be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The mother has to go to her own daughter's house and drifts within the loneliness and sadness.



감독 이준걸 Lee Jum-Geol
1964년 2월 울산실업고교를 졸업, 2009년 현대중공업 평생교육기관 한 마음 청운대학을 1년 수료하였다. 영화는 연극동아리로 출발하였고, 2010년부터 실버극단한마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울산MBC시청자미디어 센터 단편영화제작 교육 후 영화제작 및 연극 공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수상경력 은 2017년 한국영상문화제전 시민영상관광객상, 2017서울노인영화제 시스프렌드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울산가는... 길 On the Way to Ulsan

이준걸 | 2017 | 30분 | 드라마 | 컬러

경주에서 기차 타고 울산 어머니 산소로 가는 것이 영화의 시작이다. 기차 안에서 과거 아버지의 죽음.. 어린 시절 초등학교시절 생각하며 울산에 도착한다. 택시를 타고 산소 가는 길에 고교시절, 군 입대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산소에 도착하여 과거 어머니와 같이 살던 집에도 가보고 묘소에 술을 따르며 어머니와 상상의 대화를 시작 한다. 그리고 살아생전 좀 더 잘할 걸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경주로 돌아간다.

On the way from Gyeongju to Ulsan, mother's tomb is the beginning of the movie. On the train, thinking about my father's death and childhood, elementary school days. On a taxi, thinking about high school and military days. When he arrives, he went to the house where he had lived with his mother then offers the drink at the tomb and begins his imaginary conversation with his mother... His eyes get teary as he thought that he could do better when she was alive. He returns to Gyeongju.



감독 조완식 Cho Wan-Sik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어른 영상제작 양성 기초교육을 수료하였다. 주요 수상경력으로는 2017 서울노인영화제 <가을애> 우수상, 2016 서울노인영화제 <당신의 그림자> 서울시장상, 2016 전북사랑 UCC 공모전 <봄>, <그 찬란한 슬픔에 대하여> 특별상, 2015 서울노인영화제 <두 여인> 본선 진출, <인간의 색깔>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 서울시장상 및 지역미디어센터 연합워크숍 우수영상 콘텐츠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함정에 빠진 사람들 Trapped People

조완식 | 2017 | 26분2초 | 미스터리 로맨스 | 컬러

행복한 부부 금옥과 장수 앞에 어느 날 의문의 사내 한정호가 나타난다. 그 와중에 장수의 의붓동생 화자가 나타난다. 매일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다니며 자기를 비웃고 다니는 금옥은 특하면 시비를 거는 화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느 날 금옥은 정호가 자기를 도끼로 쳐 죽이는 꿈을 꾸게 되는데...

One day, a stranger Han Jung-Ho appears in front of a happy couple Geum-Ok and Jang-Su and also Hwa-Ja, the step-brother of Jang-Su appears too. Geum-Ok does not like Hwa-Ja who wears sunglasses and a hat every day and mocks her. One day, Geum-Ok dreams about Jung-Ho killing her with an ax.

YOUTH

해외단편 YOUTH > 총 6편 | 93분



감독 후안 비브스 로잔노 Joan Vives Lozano
1993년 발렌시아 알지라에서 태어났다. 카탈로니아영화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궁지에 몰린 남자>는 그의 첫 작품이다.

He was born on February 21, 1993 in Alzira (Valencia). He studied and graduated in ESCAC (Catalan Superior Film School), specializing in the area of film directing. He has worked as an assistant director in several shorts and feature films. <El Escarabajo al Final de la Calle> is his first short movie

궁지에 몰린 남자 El Escarabajo al Final de la Calle

후안 비브스 로잔노 Joan Vives Lozano | 스페인
2018 | 19분 | 극영화 | 컬러

좋은 사람으로 통하는 아마데오는 아내가 죽은 뒤 발렌시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어를 돌보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의 일에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 어느 날, 생선가게의 로링은 뱀장어의 목을 자르다가 예지력을 가지게 되어 아다데오가 단 7일 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사실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Amadeo is a good person. He lives in a small village of Valencia, and since his wife died, he sacrifices himself in taking care of his father-in-law, Agustín, who is disabled. Due to this, he doesn't participate much in social life in the village. One day Lolín, the fishmonger, has a magic foresight while decapitating an eel. Amadeo has only seven days to live. This fact will develop a series of events that will change his life completely.



감독 마리아나 루이자 Mariana Luiza
마리아나 루이자는 뉴욕영화학교에서 시나리오를 전공한 작가이다. 문학에서도 뛰어난 작품활동을 보이는 감독은 브라질에서 2010년부터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는 중이다.

Mariana Luiza is a writer and screenwriter graduated in film script at the New York Film Academy (New York-2008). Recently, she wrote and directed the fiction short <Baobab Bark>. The project was sponsored by Brazilian Ministry of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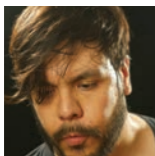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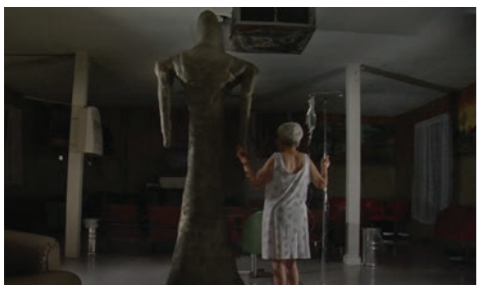
바오밥 나무 껍질 Baobab Bark

마리아나 루이자 Mariana Luiza | 브라질

2018 | 12분 | 다큐멘터리 | 컬러

외국에서 살고 있는 흑인 여성 마리아는 인종 제한 제도를 통해 대학에 들어갔다. 그녀의 어머니 프란시카는 여전히 사탕 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두 사람의 편지는 경제사회시대 종말의 흔적과 기억들을 소환해낸다.

Maria, a young black woman entered college through the system of racial quotas and now lives abroad. Francisca, her mother, still works on a sugarcane plantation. Both exchange letters that revive memories and reflects the end of an economic-social era.



감독 크리스티안 에르난데스 Christian Hernández
멕시코에서 자란 감독은 치와와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했다. <아모레스 페로스>(2001)의 제작자인 티타 롬브라도에게 영화 제작을 배웠다.

Mexican lives in Ciudad Juárez Chihuahua. Degree in communication Sciences. Graduated from the autonomous university of Chihuahua. Diploma course in Film Production, taught by Tita Lombardo (Producer of <Amores perros>)

조형 Sculpted

크리스티안 에르난데스 Christian Hernández

멕시코 | 2017 | 13분 | 드라마 | 컬러

한 늙은 여자가 건강의 문제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녀는 그녀가 만든 조형들의 낯선 방문을 받게 된다.

An old woman, hospitalized in a nursing home for health problems, begins to receive strange visits from a figure of clay that she has created.



감독 예프게니 두세악 Evgheni Dudceac
예프게니 두세악 감독은 1987년 몰도바에서 태어났다. 2011년에는 State University of Moldova, Chisinau, Moldova에서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5년부터 The Russian State University of Cinematography에서 공부 중이다. 2016년 YOUNESC CREATIE INSTITUTE에서 10K 유로를 수여하여 단편 영화를 제작했고, "Miliard"은 Evghenii의 단편영화로써 첫 연출작이다.

Evghenii Dudceac was born in 1987 in Ungheni, Moldova. In 2011 he has graduated "State University of Moldova, Chisinau, Moldova" in Chisinau with a BA in Journalism. Evghenii directed and edited a lot of web documentaries, TV & Online commercials, music videos and promos.

10억 Mili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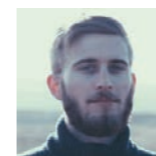
예프게니 두세악 Evgheni Dudceac | 몰도바

2018 | 21분 | 드라마 | 컬러

조지는 몰도바의 마을에서 고요한 삶을 보내는 미망인이다. 조지는 오래된 나무 변기가 그를 텔레포트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인생이 끊임없이 그를 외면해왔다고 믿어왔다. 위대한 욕망은 위대한 가능성에서 태어난다? 그가 현대 사회의 모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그에게만 달려있다.

George is an old widow man that serenely lives his last years somewhere at the edge of the world in a Moldavian village.

George believes that life continuously dodges him, until the day he notices that his old wooden toilet has the ability to teleport him from one place to another. He can visit Tokyo, climb the Everest mountain and other various tourist destinations. Great desires are born by great possibilities—will he be able to resist all the temptations of the modern world? It depends only by him.



감독 이언 포브스 Iain Forbes
이언 포브스는 <마지막 파이프>의 조감독으로 활동했고 이후 <사랑이 쓰는 것>과 <눈사람>을 만들었다.

Iain Forbes is an assistant director and director, known for <The Last Piper>(2013), <What Love Wrote>(2016) and <Snowman>(2015).

눈사람 Snowman

이언 포브스 Iain Forbes | 노르웨이 | 2015

8분 | 드라마 | 컬러

8살 소년 잰은 눈사람 만드는 걸 아버지가 도와주시길 바란다. 하지만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서자, 전혀 모르던 세상이 펼쳐진다.

Jan is eight years old and wants his dad to help him build a snowman. But when he tries to enter his father's world, he crosses a boundary he didn't know existed.



감독 다비드 비고레 David Vigore
다비드 비고레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
의 영화 감독으로 감각적인 단편 작품
들을 만들고 있다.
David Vigore was born in Italy,
He worked several short films
with sensory details until now.

꿈꾸는 여행자 The Traveler

다비드 비고레 David Vigore | 이탈리아
2016 | 20분 | 드라마 | 컬러
여자의 젊음을 훔칠 수 있을까? 오랜 세월 노인을 돌
봐온 요양사 한 명이 있다.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 같은
일의 반복. 노인을 침대에 재우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꿈을 향해 여행을 떠난다.
Can you steal a girl's youth? Hind has worked for
years as a caregiver at the home of an elderly lady,
spending her days always doing the same things. It
is an endless routine, living in a continuous present,
the agonizing wait for something, for someone. In
the evening, after putting the old woman to bed,
she takes refuge in her roomful of dreams.

해외단편 SENIOR > 총 5편 | 89분

SENIOR



감독 타랏 고크데미르 Talat Gokdemir
북부 키프로스에서 나고 자란 감독
은 2005년부터 영화를 만들어왔다.
그는 단편 극영화 몇 편을 쓰고 연출
했으며 미니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광
고, 뮤직비디오 등을 만드는 제작활동
을 하기도 했다. 첫 데뷔 영화로는 <Leave>(2012)가 있다.
Director Talat Gokdemir, born and raised in North
Cyprus, Talat Gokdemir has been making films since
2005. He has written and directed several short
narrative films, and been part of other productions
including mini documentaries, TV ads, promos and
music videos. The first film he wrote and directed
was, <Leave> in 2012.

주말 Weekend

타랏 고크데미르 Talat Gokdemir | 그리스
2016 | 23분 | 드라마 | 컬러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고향 키프로스로 돌아오는 하산. 어린시절 여자친구와
슬퍼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내적갈등을 겪는 하산.
장례식에 참여하라는 주변의 압박에 가족, 집,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화해해야하는 상황에 마주한다.
Following his father's death, Hasan returns to
Cyprus after an absence of many years. As he
spends time in his childhood village with his
grieving mother and childhood girlfriend, the inner
struggle with his identity and the challenge of being
in a traditionalist community resurfaces. The pres-
sure to attend the funeral pushes Hasan to confront
his past and to search for reconciliation, not only
with his family and home, but also with himself.



감독 추이 이 Cui Yi
중국에서 자란 추이 이 감독은 생태학을 전공했지만 결국 영화를 하기로 마음먹은 뒤 토론토의 요크대학으로 영화 제작과정을 이수했다. 추이 이는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에세이 필름과 극영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작품에서의 시와 음악성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는 중이다.

Cui Yi, born and raised in China, initially studied Conservation Ecology, but eventually decided to study Film instead. After studying Film Production at the York University in Toronto, she started working on a body of work consisting of experimental films, documentaries, film essays and narrative films. The constant search for poetry and musicality is a recurring theme in he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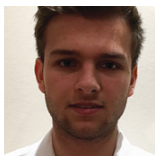
여름이 가기 전에 Late summer

추이 이 Cui Yi | 중국 | 2017 | 13분

실험영화 | 컬러

수 세기 전의 베이징 극장을 현대의 일시적인 공간으로 소생시킨다.

LATE SUMMER captures a centuries-old Beijing theatre in its incarnation as a modern-day transient space.



감독 드미트리 레스네프스키
Dmitry Lesnevsky Jr.
1996년에 태어난 감독은 데뷔작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만들었다.
Dmitry Lesnevsky Jr. was born in 1996. <Turnaround>(2015) is his

debut work.

우리를 둘러싼 세계 Turnaround

드미트리 레스네프스키 Dmitry Lesnevsky Jr.

러시아 | 2017 | 9분 | 드라마 | 컬러

숲 속 깊은 곳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전목마. 회전목마를 탄 사람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영혼의 불멸성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저승이라는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초현실주의적 작품.

Turnaround, a surrealistic short film by the young British director, is an attempt to peek beyond the veil, exploring the subjects of death and immortality of the soul. Yet the director gives the audience no answers...



감독 콜도 아몬도 Koldo Almandoz
1973년에 태어났다. 40세 생일을 맞기 전 그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고 컬트에 가입했다. 당분간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해 특별하게 기록할 만한 것은 없을 것 이며, 그의 지난 삶에 대해서도 특별한 것은 없다.

Born in 1973. Just before his 40th birthday, he has decided to erase his official biography and join a cult. For the time being, there is nothing interesting to note about his new life... nor about his old one.

기계를 타고 내려온 신 Deus et Machina

콜도 아몬도 Koldo Almandoz | 스페인 | 2012

8분40초 | 극영화 | 컬러

매일 공장에 출근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그가 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진 유일한 사람이다. 그 일은 정확하고 평범하며 반복적인 작업이다. 매일 아침마다 같은 작업을 하고 기계들을 가동하던 중 오늘은 결정을 내리는데...

The employee comes to the factory every day. He is the only person who is qualified to do his particular job. It is precise, mundane, and repetitive work. Every morning he goes through the same drill, starting up each machine. Today, though, he has made a decision...



감독 타티아나 페드로브스카야
Tatiana Fedorovskaya
러시아 마그니토고르스크에서 감독, 극작가,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Tatiana Fedorovskaya is a Director, Screenplay Writer, Actress

from Magnitogorsk, Russia.

사라지지 않는 빛 Faith

타티아나 페드로브스카야 Tatiana Fedorovskaya

러시아 | 2016 | 드라마 | 컬러

라디오를 조작하는 일을 했던 아내를 잃은 남자는 전구의 불빛을 작고한 그의 아내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이 불빛이 사라질지라도 그의 삶에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An old widower, a former radio operator, perceives the flashing bulb as his late wife's messages. The love of his life will never die, even when the lights are gone.

해외장편 > 총 1편 | 104분

마스터클래스: 대만특별전 “기원 Origin” (Hung-En Su 감독) > 총 2편 | 80분
Materclass: Taiwan Special Screening “Origin” (Hung-En Su)



감독 마츠타니 미츠에 Mitsue Matsutani
〈타샤 튜더〉는 감독이 10년간 취재를 하며 완성한 작품이다. 마츠타니 미츠에 감독은 1983년부터 NHK, TBS, ANN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다. 자연을 주제로 한 〈세계 유산〉, 〈네이처 스페셜〉 등 시리즈와 〈논픽션〉, 〈텔레멘터리〉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작품, 〈아름다움에 살다〉, 〈미궁의 미술관〉 등 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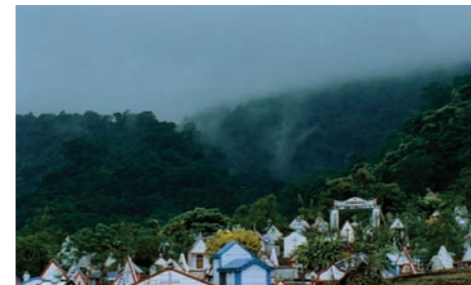
〈Tasha Tudor〉 is a work completed by Mitsue Matsutani for 10 years. She has been producing many documentaries since 1983 on NHK, TBS, and ANN. She has produced documentaries with diverse themes. Such as 〈World Heritage〉, 〈Nature Special〉 on the theme of nature, 〈Nonfiction〉, 〈Telementerry〉, 〈Living in Beauty〉 and 〈Museum of the Labyrinth〉.

타샤 튜더 Tasha Tudor: A Still Water Story

마츠타니 미츠에 Mitsue Matsutani | 일본 | 2018
104분 | 다큐멘터리 | 컬러

동화 같은 사계절, 마법 같은 타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 받는 베스트셀러 동화 작가이자 「비밀의 화원」과 「소공녀」,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카드 삽화를 그리고 30만 평 대지를 천상의 화원으로 일구며, 꿈꾸는 대로 살았던 자연주의자 ‘타샤 튜더’ 라이프스타일의 아이콘, 타샤가 직접 들려주는 그녀만의 행복 스토리!

A naturalist and bestselling writer of children’s books, Tasha TUDOR illustrated several books such as The Secret Garden and A Little Princess as well as Christmas cards for the White House. She cultivated a magnificent garden on her vast property and lived the life of her dreams.



마운틴 The Mountain

소향은 Hung-En Su | 대만 | 2016 | 60분
다큐멘터리 | 컬러

수 백년 동안 대만은 각기 다른 식민지의 지배하에 있었다. 독일, 스페인, 일본 그리고 현재는 중국이 각기 다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식민기 토착민들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분류되었고 그들의 자문화는 전폭적으로 변화되었다. 오직 대만의 토착민들만이 이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다큐멘터리의 중심 인물은 투룩(Turuk)이라는 노인이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토착민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하나의 역사로 볼 수 있게 된다.

For hundreds of years, this island, Taiwan, has been under different colonial rules. From the Dutch, the Spanish, the Japanese, and nowadays Republic of China, each regime left their footprints on this island. During these periods of colonization, As the colonized, indigenous peoples were labeled in different names and self-cultures had gradually being changed.

Only the indigenous people of this island truly experienced of the process. The main character in the documentary is a Truku old man. Through his life experiences and life course, we see the history of aboriginal recertification movement.



랜드 The Land

소향은 Hung-En Su | 대만 | 2017 | 20분
다큐멘터리 | 컬러

투룩(Turuk)의 형제인 테무(Temu)는 그의 아들에게 땅을 물려준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일을 이어오고 있다. 어느 날, 가족이 그들만의 의식을 치를 때 테무의 아들 시궤(Siqay)는 그의 남동생 하롱(Halong)에게 토지개발자와 이야기해볼 것을 부탁한다.

Truku elder Temu continues to work in the field after he has passed the land down to his sons. One day, as the family is holding a ritual, Siqay, Temu's eldest son, asks Halong, his younger brother, to talk to the land developer.



감독 소향은 Hung-En Su

소향은 대만에서 태어났고, 세신대학교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전공 학위(MFA)를 받았다. 그는 토착민과 대만계 부모사이에서 태어났다. 두 정체성 사이에서 계속된 전환은 감독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최근 작품들을 대만의 토착문제에 대한 감독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Hung-En Su was born in Taiwan and received his MFA degree of Radio, Television and Film in Shih Hsin University. He's born to mixed aboriginal / Taiwanese parents. Constant switching between these two identities helps him to see this worl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Recent film works are issues about indigenous people and social problems.

Director's note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존재와 대립에서 시작한 작업들은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연구하는 동안 많은 역사적 기억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경험과 원주민 사회의 운동의 과정으로부터 확장된 레퍼런스를 우리의 근간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노인의 이야기는 그 뿐만 아니라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영화를 제작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실행과 변형의 과정이었다.

Starting from a point of the coexistence 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human and nature, this documentary film was planned to tell a story like 〈The Old Man and the Sea〉.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field research, many historical memories were dug out. Thus we took them as our base and expanded references from life experiences and life course to the aboriginal recertification movement. The old man's life story was not only himself but included messages with social critique. The processes of the transition and the practice are the most difficult part during the film production.

국내특별장편 > 총 4편

현대 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이슈들, 그 속의 노년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Korean Feature Film

Looking at the many issues surrounding modern society, and the lives of elders' in it.



감독 남승석 Nam, seungsuk

남승석 감독은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영화이론 Post-Doc 연구원이다. 이후 개인기록물로 시대 속의 개인을 조명한 장편 다큐멘터리 〈하동채복: 두 사람의 노래〉(2017)로

2017 부산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부문, 2018 한국경쟁, 인디다큐페스티벌 국내 신작전, 부산 평화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Postdoctoral researche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Arts. He majored in philosophy(B.A.) and artificial intelligence(M.S.) at Sogang University. After studying Film, Video, New Media at SAIC(B.F.A.) in the USA, he got a Ph.D. degree specializing in political documentary at Sogang University. He did research for his dissertation as a visiting fellow at Harvard University.

하동채복: 두 사람의 노래 Ha Dong Chae Bok: A Song of Two Humans

남승석 | 2017 | 105분 |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 컬러

귀농하여 살아가는 두 노인 부부 하동과 채복. 집을 중심으로 커가는 농작물, 햇살, 심지어 천장 창밖에서 읽히는 계절의 변화가 부부의 편지와 맞물린다.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삶은 편지를 통해서 이 노부부의 현재를 바라보게 한다. 노부부의 삶은 광장을 밝힌 촛불의 주인공인 '우리'임을 비춰내듯이 하동과 채복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 연애편지에서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준다.

This documentary film was made through performative interviews based on the 189 letters the Kim couple wrote to each other in prison. They tal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other as individuals, lovers, a couple, parents, and the changes in their lives,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1987 when they were together and the present year of 2017.



감독 문창현 Moon Chang-Hyeon
문창현 감독은 오지필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춤추는 걸 좋아한다. 리듬이 듬뿍 담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한다. <나와 나의 거리>(2013)를 연출·촬영·편집하여 인천여성인권영화제, 인도포럼, 부산독립영화제 관객상, DAIFF 청춘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Changhyeon Moon is a member of Ozifilm, an independent documentary filmmaking community. She is a documentary filmmaker who loves to dance, and wishes to make documentary films resonating with her whole rhythm.



감독 김문옥 Kim Moon Ok
김문옥 감독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하고 충무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2017년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단편경쟁부문 노인감독상,

2013년 제1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디지털 대상 등이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메기의 추억>, <꽃피: 독이 있는 사랑>, <슬픈 결혼사진> 등이 있다.

Director Kim Moon-Ok is Senior film diretor. Kim Moon-Ok majored in writing at Chung-Ang University. He is working as a festival member of Chingmuro Short Film Festival. He won 1st prize last year, The 10th 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

기프실 Gipeusil

문창현 | 2018 | 94분 | 다큐멘터리 | 컬러

할머니 댁이 있는 기프실 마을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로 변해가고 있다. 10가구 남짓 남은 기프실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 속에 있는 듯하다. 마을 주민들은 기한없이 미뤄지는 이주를 앞두고도 뜯겨난 땅에 또다시 삶을 일구고, 떠나가는 이웃을 배웅하며 함께 생활한다. 나는 그분들과 섞여 하루가 다르게 비어가는 기프실의 모습과 황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다. 그리고 검은 물속으로 잠기는 마을과 마음을 보며 내 안에 숨겨둔 기억을 꺼낸다.

Gipeusil, the town where my grandmother lives, is changing due to the construction of Yeongju Dam. While observing the town and the minds sinking into the dark water, I take out the memories that were hidden inside me.

메기의 추억 When You and I were Young, Maggie

김문옥 | 2018 | 104분 | 극영화 | 컬러

길거리 바이올린 악사인 80대 독거노인 [마노인]과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추노파]의 노년을 위하여 손자, 손녀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리마인드 웨딩을 올려주던 날, 예식장에서 도중에 추노파가 그만 절명을 한다. 눈물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추노파를 향한 마노인의 피맺힌 절규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메기의 추억'의 선율은 많은 100시대를 맞는 노인들에게 감명을 주는 저예산 장편독립 가족영화이다.

It is story about Mr. Ma, an old man in his 80s and Mrs. Chu who suffers from demntia. When their grandchild put them up at a remind wedding ceremony suddenly Mrs. Chu passed away. This film that impress the elderly in the 100s, a kind of family feature.



감독 박배일 PARK Bae-il
박배일 감독은 현재 오지필름에서 활동 중이다. 옆집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다큐멘터리 <그들만의 크리스마스>(2007)를 만들기 시작했다.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이 차별받

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잔인한 계절>(2010)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환경영화제 한국영화 우수상, <나비와 바다>(2011) 부산국제영화제 메세나상, 대만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3년 1월 개봉, <밀양전>(2013) 서울독립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한국영화 우수상, <밀양아리랑>(2014)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서울환경영화제 대상·관객심사단상, 2014한국독립영화상, 2015년 7월 개봉, <깨어난 침묵>(2016) 부산평화영화제 관객상,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최고한국구애상을 수상하였다.

He currently working in an independent film group, Ozifilm. Inspired by an old lady in his neighborhood, he made his first short documentary, Just Their Christmas (2007). Dreaming of a world without any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s, women and the disabled, he is currently working on other documentary projects.

소성리 Soseongri

박배일 | 2017 | 87분 | 다큐멘터리 | 컬러

쏟아질 것 같던 별이 해가 뜨며 사라지고, 등 굽은 의선이 유모차에 의지해 마당을 느린 걸음으로 돈다. 순분은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인다. 깨를 심고, 옥수수를 따고, 감자를 캐는 순분의 손과 발에 흙이 가득 묻어있다. 금연은 모를 심고 있는 상희의 새참을 준비해 논으로 향한다. 금연과 상희는 작은 수풀이 만들어낸 그늘에 앉아 중참을 먹으며 까르르 이야기를 나눈다. 회관에서는 여럿이 둘러 앉아 밥을 먹고, 화투를 치고, 새근새근 낮잠을 청한다. 해가 뉘엿뉘엿 산을 넘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소성리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간다. '삐이~ 삐이~' 사이렌이 울리고, "주민 여러분. 사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세요." 순분이 마이크를 잡고 외친다.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화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면서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고, 사이렌 소리에 맞춰 주민들은 사납게 움직인다.

Vibrant stars disappear into the night as the sun rises and Ui-seon with her hunched back depends on her stroller to walk around the yard slowly. Sun-bun plants sesame, pulls out grass in her field, and digs out potatoes all day, sweating. Geum-yeon and Sang-hui have a conversation while eating snacks, sitting under the shade of stubby bushes. Several people eat in a circle, play card games, and take a nap in the village hall. This day in Soseongri goes on just like yesterday did.

Know-ing: 미얀마 특별전 “엄마의, 여성의, 그녀의 삶” > 총 3편 | 52분

미얀마 양곤필름스쿨의 세 작품은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삶의 일대기.

가족으로서, 여성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품

Know-ing: Myanmar Special Section “Mother, Woman, Life of HER”

Film about history of three women by group of Yangon Film School.

It presents various perspective of woman's life.



감독 체리 띠 Cherry Thein

1985년 양곤(Yangon)에서 태어난 체리 띠는 영어,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그녀는 현재 만달레이 거리에 사는 어린 소녀에 관한 YOF 학생 Thae Zar Chi Khaing과 함께 장편 다큐멘터리 Coccoons을 작업 중이다. <엄마의 집>은 그녀의 감독 데뷔작이다.

Born in Yangon in 1985, Cherry Thein studied English, psychology, communications and journalism. She is currently developing a feature-length documentary Coccoons together with fellow YFS student Thae Zar Chi Khaing about young girls living on the streets of Mandalay. Mother's Burden marks her directorial debut.

엄마의 집 Mother's Burden

체리 띠 Cherry Thein | 2018 | 16분47초

다큐멘터리 | 컬러

나이든 미혼모가 시골 바간(Bagan)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녀의 딸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미얀마의 보수적임과 형편없는 처우를 반영하고 있다.

This story of one older single mother's struggles in rural Bagan and her misguided choices for her daughter reflects the conservative and sometimes ill-fated approaches to parenting that still prevail in today's Myanmar.



흑설탕 Sugar & Spice

미미 르윈 Mi Mi Lwin | 2017 | 28분

다큐멘터리 | 컬러

미얀마의 중앙 건조 지대에서 공작야자수로 흑설탕을 만들면서 겨우 살아가는 영화 제작자 부모의 사랑스러운 초상화.

A lovingly filmed portrait of the filmmaker's parents who eke out a living making 'jaggery' sweets from toddy palm syrup in Myanmar's central dry zone.

감독 미미 르윈 Mi Mi Lwin

미미 르윈은 미얀마 중앙 건조지대에서 왔다. 그녀의 부모님은 공작야자수 농부들이다. Yezin 농업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비영리단체 EMR에서 인턴십을 하기 위해 양곤(Yangon)으로 돌아왔다. 2014년 양곤 필름스쿨(Yangon Film School)에 입학 한 이후로 그는 Bus Conductor의 사운드 트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를 제작했다.

Mi Mi Lwin comes from Nyaung Oo Township in Mandalay Division in Myanmar's central dry zone.

Her parents are toddy palm farmers.

After graduating from Yezin Agricultural University she came to Yangon where she took up an internship at independent non-profit organisation Enlightened Myanmar Research (EMR).



감독 윈 추묘 Win Thu Myo

윈 추묘는 미얀마 중심 지역에서 성장했다. 양곤에서 영화와 드라마 공부를 한 뒤 뮤직비디오를 편집하는 일을 시작했다. 양곤필름 스쿨에서 2016년부터 작품을 만들어왔다. 그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어머니, 정신적 지주>는 2017년 미얀마에 위치한 괴테문화원에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만달레이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Director Win Thu Myo grew up in a village in Natmuk Township in Magway region in central Myanmar. After studying cinematography and drama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in Yangon he began working as an editor of music videos and shorts, also appearing as an actor. His second year project The Good Woman of South Dagon was joint winner of the 2017 Goethe Institut Myanmar Documentary Ruby Award.

어머니, 정신적 지주 The Good Woman of South Dagon

윈 추묘 Win Thu Myo | 2018 | 18분19초

다큐멘터리 | 컬러

노인이라고 약한 것은 아니다. Daw Tin May Oo는 양곤지역의 한 마을에서 활동하는 미얀마의 집권당 NLD 회원이다. 그녀는 이웃을 돕기도 하고, 친구들과 고양이에게 특히 친절하다. 그들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녀의 재밌는 '힘든 사랑'법을 통해 미얀마 시민 사회의 힘과 연민을 보여준다.

The elderly but by no means frail Daw Tin May Oo is a no-nonsense member of Myanmar's ruling party NLD serving in Yangon's South Dagon Township. She supports her neighbours and she is good to her friends and especially her cats-whether they like it or not. But beneath her hilarious 'tough love' approach she embodies the strength and compassion of Myanmar's civil society.

Know-ing: 예술농부 프로젝트 “완주로컬푸드, 예술이 되다” > 총 3편 | 78분

올해 서울노인영화제와 MOU를 체결한 완주문화재단의 예술농부 프로젝트는 특정한 철학을 가진 농사가 어떻게 하나의 견고한 예술로 완성될 수 있는지를 지켜본 프로젝트로, 청년 작가들과 농부의 협업이 인상적입니다.

Know-ing: Art Farmer “Become a Local Food, Art”

The Wanju Cultural Foundation’s Art and Farmer Project, which signed an MOU with the 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 is an impressive project to see how certain philosophy-based farming can be completed with a solid art.



박유미 감독
Park Yumi
설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매체에 관심
이 많다. 2018년 개
인전 <바다에서 만날

까> 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2014년 아르코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마로니에 다방’을 기획했다. 예술가가 온 세상을 바라잡을 수는 없지만 예술은 이 세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든다, 는 커트 보니것의 말을 붙잡고, 여전히 예술로 바라보고 예술로 말하는 작가로 묵하 활동 중이다.

감독 정재욱 Jung JaeUk

물성에 주목하는 설치작품으로 <보기 위해 눈을 사용한 일> (2015), <덧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예찬>(2012) 외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예술은 삶의, 삶은 예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잡다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찔레꽃 Wild Rose

박유미, 정재욱 | 2018 | 25분 | 실험영화 | 컬러&흑백
도시, 발전, 미래. 세계는 끊임없이 지향하고 움직이고, 변화한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뿌리 깊은 정주의 삶, 숙명에 순응하는 태도, 견디고 감내하는 일상을 잃어가고 있다. 양양순 농부는 우리가 잃어버린 채 잊고만 삶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해준다. 새삼 그리워하게 만든다. 언제나 그곳에, 온전히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고향, 어머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삶이 그녀 안에 있다.

We focus on a woman farmer, Yang Yang-soon, who lives on the belief that is destiny. The world is constantly moving and changing, and we are losing the attitude of adapting to fate and the routine of persevering and enduring. Yang Yang-soon makes us rediscover what we’ve forgotten in life. There is home, mother, and life of human nature inside her.



몸의 노래 Her Song

김선교 | 2018 | 34분 | 다큐멘터리 | 컬러

양순 할매의 몸은 노래한다. 할매의 박자에 따라 몸은 리듬을 타고 구십 년 삶의 멜로디를 풀어놓는다. 그러므로 몸의 노래는 생의 춤이다. 할매가 움직이면 몸결은 파도를 치고 할매가 멈추면 몸결도 고요해진다. 그녀의 몸결을 나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몸의 노래’는 그 바라봄의 기록이다.

The body of Yang-soon is a kind of rhythm and melody of life. When a hawk moves, its body hits the waves, and when it stops, it calms down. This film is document of seeing Yang-Soon.



감독 김선교 Kim Sun-Kyo
무소속 영상노동자. 연출한 작품으로는 음악 다큐멘터리 <color of song>(2014)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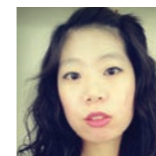


비포 앤 애프터 이시엽 Before & After Yi Siyeop

김다혜 | 2018 | 20분 | 다큐멘터리 | 컬러

이시엽 농부님을 만나기 전 농업과 농부들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이시엽님을 만난 후의 현실을 비교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시엽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기록이다.

This is a project tracing my endeavor to get to know the farmer Yi Siyeop in various aspects, especially focusing on how my thoughts about farming and agriculture changed throughout the time I spent with him.



감독 김다혜 Mia Dahye Kim
한국에서 영화연출을, 영국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했다. 멀티스크린 비디오 작품들과 비디오, 사진, 오브젝트,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혼용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고 있다. 새로운 장소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관심이 많다. 그에 따라 한국, 영국, 독일,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작업과 전시를 해왔다.

Know-ing: 노인영상자서전 “영화로 기억되는 우리들”

삶이 곧 예술이며, 예술이 곧 삶이다! 노년기에 돌아본 인생의 의미를 담은 노인영상자서전은 2017년 미디어엑트와 서울시가 주관한 프로젝트로 청년감독의 카메라와 노년의 삶이 담긴 구전(口傳)이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Know-ing: Senior's Autobiography of a Video “Be Remembered by Movie”

Life is art, and art is life! A video autobiography of life that reflects the meaning of life in old age is a project sponsored by the Mediact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17. You can observe how the young director's filming and the story of old life are made into film.



앙코르 인생

김보람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윤이남, 권영국. 50대에 새롭게 만난 뮤지컬 배우의 꿈, 무대에서 우리는 영원한 청춘이다!



금천구의 영원한 선생님

김보람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최현남. 그 골목길 반지하 공부방엔 언제나 ‘선생님’이 있다.



동네사진사

김소람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김유겸. 선생님일 때 아이들을, 이웃일 때 어르신들을, 그리고 할아버지로 손주들을 찍으면서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신바람

김소람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정인아. 젊었을 적 일을 하기위해 챙겨보던 영화는, 요즘 그녀의 신바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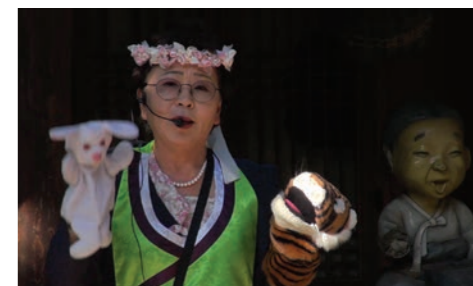
옛 경기중학교를 거닐다

김형준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민철기. 이제는 정독도서관이 된 옛 경기중학교. 사춘기 중학생 소년의 추억이 정독도서관 독서회 활동으로 이어지다.



이야기 할머니

김소람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이규원. 여러 사물이 이야기가 되는 찬란한 순간을 경험하며, 동화의 삶을 살아왔다.



열심히 살았어요

김소람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조향숙. 엄마,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던 과거와 당신에게 집중하는 현재를 이야기한다.



꿈은 꿈이다

김형준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조규옥.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공부에 대한 열정, 사랑과 작가로서의 노년. 긴 세월 끝에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다.



그 남자의 사진첩

김형준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최규중. 백일 사진부터 영화 제작까지, 삶과 함께했던 카메라, 사진, 영화. 그리고 그 속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다.



은은한 사랑의 향기

김형준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황화자. 단란한 어린시절과 모래내 시장의 기억들, 활기찬 노년과 열정적인 산사랑까지.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그녀의 삶을 들여다본다.



서대문 지킴이

장용웅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최용완. 그의 하루는 서대문구를 사랑하는 의식으로 시작된다.



행복 전도사

홍은애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김명희. 첫 딸을 대학교에 보낸 후 걸린 갯년기 우울증을 동화구연을 통해서 극복한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부끄럽지 않은 삶

장용웅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안경애. 거칠고 힘들었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인생. 인형극단 봉사활동을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행복을 누린다.



시네마 천국

장용웅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윤무영. 대한민국 1호 영사기사로 살아온 삶. 그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날마다 공원을 걷는다

홍은애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김복영. 2년 6개월 전에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후 매일같이 어린이 대공원으로 출근하는 그를 만났다.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

홍은애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김현남. 68년에 화장품회사에 입사한 것을 계기로 아름다움을 향해 한 길만 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다.



옛날에는 그랬지

장용웅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장희성. 지금은 사라진 종로의 옛 집터를 찾아가다.



나의 인생여정

장용웅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정재종. 용맹했던 국어선생님의 인생여정



언제나 청춘

홍은애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우귀옥. 여고시절 성우를 꿈꿨던 소녀는 노원 FM '언제나 청춘'을 진행하는 팟캐스트 진행자가 되었다. 그녀의 녹음실을 찾아간다.



화초와 함께하는 일상

홍은애 | 5분 | 영상 자서전 | 컬러
홍옥순. 16년간 가족처럼 함께했던 강아지를 떠나보내고 화초를 가꾸며 노년을 맞는 그녀의 일상에 동참한다.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Knowing(노인) 영화감독, 영화로 말하다.

어르신, 감독이 되다.

영화를 매개로 문화예술활동가로서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이들의 여정은 지난 4월부터였습니다. 이미 작품을 만들고 있는 어엿한 감독,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인 자칭 평론가, 단순한 호기심에 참여한 어르신 등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7개월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영화를 통해 노인을 말하는 어엿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STEP 1. 영화, 대담하게 감상하고 비평하기(4월)

- 영화의 기원 및 역사 이해
- 영화감상의 자세 : 숨은 메시지 읽기
- 영화감상 및 비평



STEP 2. 영화, 마음먹은 대로 제작하기(5월~8월)

- 기획안, 시나리오 작성
- 다양한 촬영기법 훈련
- 영화감상 및 비평



STEP 3. 영화, 자신 있게 보여주고 해석하기(10월~11월)

- 찾아가는 영화상영회 및 관객과의 대화
- 최종발표회

“어르신과 영화가 만나 열정이 되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박동선 사회복지사)

올해 초에 개인적인 취미로 캠코더와 삼각대를 구매하여 촬영에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어렵고 바쁘다는 핑계로 빠른 시간에 포기한 기억이 납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남녀노소 세대를 막론하고 힘든 일임을 느낀 순간 이었는데, 그 후 얼마 있어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장비, 프로그램, 스케줄을 힘들다 하시면서도 멋지게 소화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어르신보다 감독님이라는 호칭이 더 입에 붙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완성된 영화들”

(KNOWING 영화감독, 영화로 말하다. 이소현 감독)

생애 두 번째 영화를 찍고 싶어서 아흔 두 살에 이 수업을 신청하셨다는 어르신, 남편과의 사랑을 영화로 표현하고 싶다는 어르신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무척 뜻 깊었고, 그 큰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느낀 힘들만큼 얻은 큰 감격”

(KNOWING 영화감독, 영화로 말하다. 송혜경 어르신)

지난 봄·여름 내내 만든 우리들의 풋내나는 영화!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선보여지니 만감이 교차한다. 수업을 들을수록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편집과정은 정말 만만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진정한 노인영화가 될 수 있다.”며 늘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이소현, 김태연, 안현준 강사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파이팅!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성취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어르신&청년 협력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 등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어르신문화프로그램 “Knowing 영화감독, 영화로 말하다”

> 총 5편 | 56분

“나는 영화로 말할 수 있어!” 다섯 명의 Knowing 영화감독과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

2018 Senior Culture Program

I Can Speak as a Film! A Story about Five Directors



화양연화
The Most Beautiful Moment
In Life

송혜경 | 노인 | 2018 | 7분 | 극영화 | 컬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화양연화 내가 동갑인 그녀를 만난 건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나간 서울 노인복지센터 탐방송국 신입회원(2016) 야유회 때였다. 동갑이지만 여러모로 -등이 훨 것 같은 삶의 무게-를 감내해 온 아우라가 느껴졌다. 역시 내 예상은 맞았다. 5년 여간 소중한 존재를 연달아 잃고, 바닥까지 가 라앉았다 올라온 그녀에게선 녹록치 않은 인생 페이지가 갈피갈피 접혀져 있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자 만이 누릴 수 있는 -화양연화-가 지금 그녀에게 펼쳐지고 있다.

The most beautiful and happiest moment in your life: 화양연화

I first met her at a new member picnic hosted by the Top Broadcasting Station of the Seoul Senior Welfare Center in 2016. She was the same age as me. I felt the atmosphere that she had endured the weight of her life. My prediction was right. She has lost one person in succession for the past five years. “Hwa-yang-yeon-hwa(화양연화)”, which only a person who has endured the ages of suffering can enjoy, is now unfolding to her.



말벗 A Crony

권순열 | 노인 | 2018 | 8분 | 극영화 | 컬러

복지관에 노인일자리에서 “독거노인과 말벗” 해주는 일을 하는 주인공은 어느 독거노인 말벗을 해주고 있었다. 그 노인이 손녀를 키우며 같이 살 때는 괜찮았는데, 딸이 손녀를 데리고 가버린 후 혼자가 되니 우울증에 걸려 병이나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에 주인공은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린다. 복지관에서 여직원이 찾아와 취미생활을 해보라는 위로를 하고, 이에 용기를 얻어 웃음교실에 참석해서 마음을 회복한다. 그리곤 다시 다른 독거노인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 활기를 찾는다.

The main character was working in the welfare center to become a “conversation partner” for the elderly man living alone. However, her conversation partner died of depression after his daughter took her granddaughter. Because of this incident, she was shocked and depressed. She participates in the “Laugh Class” by the invitation of the social worker of the welfare center. Than, she recovers from depression, and becoming “conversation partner” for other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gain.



그날 밤 The Night

강혜령 | 노인 | 2018 | 8분 | 극영화 | 컬러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던 시절 정전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린 삼남매는 놀이를 찾아내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걱정 모르고 행복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막내(현철.남.5세)의 시점이 되어본다.

When power supply was not smooth,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due to power outages. But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find happiness in their play. It reminds me of those days when I did not worry and was happy, and I became the youngest brother.



어르신 통역사들
Senior Interpreters

조용서 | 노인 | 2018 | 12분 | 다큐멘터리 | 컬러

평균 나이가 75세.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통역사들의 지하철역 통역봉사가 빛나보였다. 궁금함을 해결한 외국관광객들의 감사하다는 미소가 마음에 와 닿아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service interpreter for the subway station of the welfare center's senior interpreters whose average age is 75 years seemed to shine. I felt a gratitude for the appreciation of foreign tourists who solved their anxiety, and I became interested in introducing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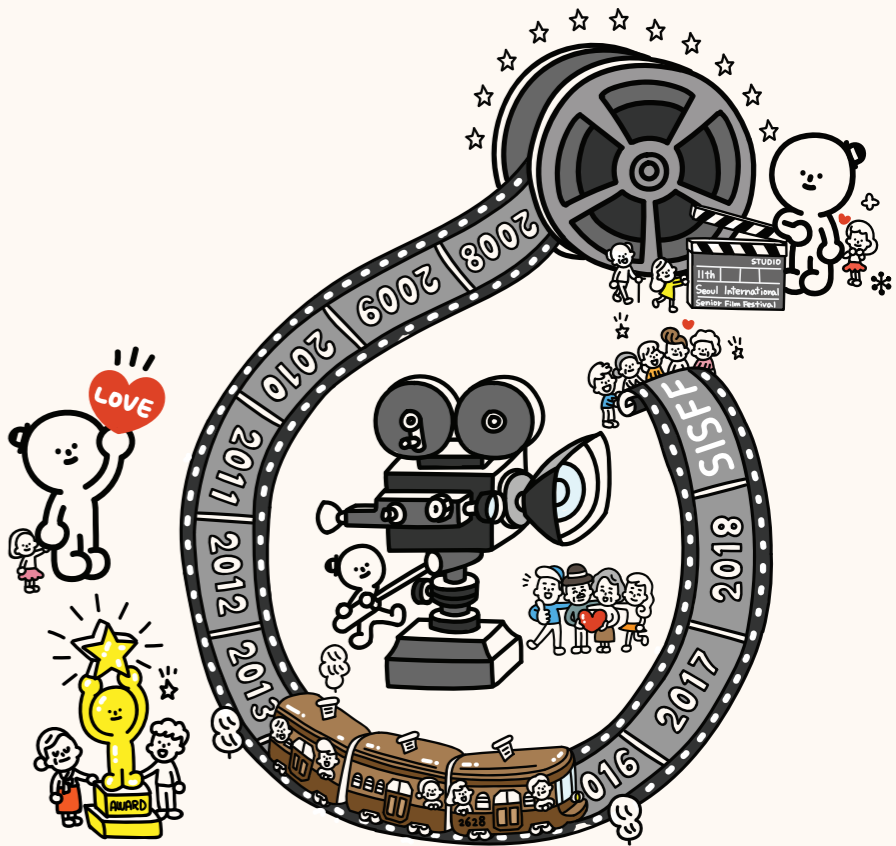
내 사랑 내 남편
My Love, My Husband

이윤수 | 노인 | 2018 | 21분 | 다큐멘터리 | 컬러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담은 이윤수의 자서전이다. 남편과 같은 학교 교사로서 연인으로 교제했던 과거의 추억을 그림으로 연출 하였고, 결혼 후에 남편이 6.25전쟁 후반기에 학도병으로 출전하여 71명중 6명만 생존자 6명인데 그중에 한명이 남편이며 부상하였으며 파편이 온몸에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 하였으며, 부인인 나는 가정을 책임 짓는 가장 으로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을 나 자신이 직접 연출 했다. 70대 부터 영화제작을 시작했고, 활기찬 황혼기의 삶을 직접 연출했다.

This is an autobiography of Lee Yoon-soo's life. She and her husband were the same school teacher, and she wrote in her autobiography the memories of the past I made with him. After marriage, the husband survived by participating in the Korean War. However, because of the aftereffects, he lived as a vegetable and eventually died. She(Lee Yoon-soo) alone was responsible for the family and lived in suffering. She has been making films since she was in her 70s. This autobiography contains such story.

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



업사이클 문화공유플랫폼, 시니어공방

일정 2018년 10월 24일(수)~27일(토)
장소 대한극장 4층
내용 자투리 천이나 헌옷 등을 새로운 생활소품으로 제작하는 체험과 전시·판매
※ 판매수익은 서울노인영화제 운영에 사용됩니다.
비고 삼청동(종로구 삼청로4길 22 구립북정경로당 건물)에 오픈한
시니어 공방을 찾아오시면, 더욱 많은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있다, 추억있다.

일정 2018년 10월 24일(수)~27일(토)
장소 대한극장 1층, 4층
내용 바라바빠가 함께하는 2018 서울노인영화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겨요!

바라바빠 × 2018 서울노인영화제

일정 2018년 10월 24일(수)~27일(토)
장소 대한극장 3층, 4층
내용 홍원표 작가의 시그니처 캐릭터 ‘바라바빠’가 함께하는
2018 서울노인영화제 캐릭터 상품(굿즈) 전시·판매 및 엽서 컬러링 체험
※ 판매수익은 서울노인영화제 운영에 사용됩니다.
작가 홍원표
개인전 : <더 빅히어로> 빅이슈 같이가게, 서울(2017)
<Barabapa’s Lovers Life> 롯데갤러리, 경기(2015) 외 다수
저서 : 동화책 <오잉?> 웃는돌고래



노인과 청년, 서로를 묻다.

일정 2018년 10월 24일(수)~27일(토)
장소 대한극장 1층, 4층
내용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의 취미생활이 궁금해!”
노인과 청년,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고 답함으로써, 서로를 잇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영화로 이어지는 우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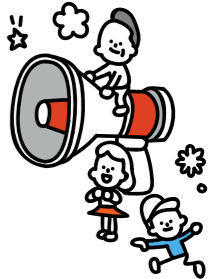
일정 2018년 10월 24일(수)~27일(토)
장소 대한극장 1층, 4층
내용 내가 생각하는 2018 서울노인영화제 상영작의 명장면, 명대사를 마음껏 적어봄으로써
빈 공간을 영화로 채우는 열린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

손글씨로 전하는 특별한 마음, 캘리그래피

일정 2018년 10월 24일(수)~27일(토)
장소 대한극장 4층
내용 “걱정마, 넌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오늘도”,
따뜻한 글귀로 특별한 마음을 전하는 캘리그래피 체험

SISFF 특별전, 지난 10년을 잇다.

일정 2018년 10월 24일(수)~27일(토)
장소 대한극장 4층
내용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서울노인영화제,
SISFF 특별전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서울노인영화제를 돌아봅니다.



티켓예매방법 Ticket Information

* 2018 서울노인영화제는 무료상영입니다.

구분	방법	예매기간
전화	전화 예매 02.6220.8692 전화신청하시면,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예약문자를 보내드립니다.	10.11.(목)~10.27.(토) 09:30~15:30 (토) 09:30~13:00
현장예매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티켓부스	
	대한극장 티켓부스	10.11.(목)~10.27.(토)
이메일	이메일 예매 sisff@daum.net 10인 이상의 단체관람의 경우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예약문자를 보내드립니다.	10.11.(목)~10.27.(토)

Type	How to make a reservation	Period
Via phone call	Phone call to 02.6220.8692 After your reservation phone call, we will send the confirmation text message. Please exchange your confirmation message with the ticket at the Festival Ticket Box.	10.11.~10.27. 09:30~15:30 (sat.) 09:30~13:00
SISFF Ticket Box	Seoul Senior Welfare Center 1st floor Ticket Box	
	Daehan Cinema SISFF Ticket Box	10.11.~10.27.
Via E-mail	E-mail to sisff@daum.net For the group ticketing more than 10 persons, please make a reservation via email, and we will send the confirmation text message. You can exchange your confirmation message with the ticket at the Festival Ticket Box.	10.11.~10.27.

입장료 Price

-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All screenings are open to all.

유의사항 Note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상영시작 10분 후에는 관람객의 안전과 집중을 위해 입장이 불가합니다.
- 티켓 분실 및 파손의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 영화상영 도중 모든 종류의 촬영은 불가합니다.
- Screenings will begin on time and admission is permitted only until 10 minutes after screening begins.
- Lost or damaged tickets cannot be reissued.
- In any case using camera/camcorder is not allowed during the screenings.

초대권 사용 안내

- 수령하신 초대권은 관람을 원하시는 상영작 입장권으로 교환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개·폐막식을 제외한 당일의 모든 상영작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초대권 1매 당 1회의 상영작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발권 받은 입장권은 취소, 교환 불가합니다.
- 전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입장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 당일 상영작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폐막식은 선착순 예약되어 조기 관람 예약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Inquiry

서울노인영화제 사무국
전화 Festival Office : 02.6220.8691~2
이메일 E-mail : sisff@daum.net

작품색인

10억 49	시네마 천국 66
WISH 39	신바람 65
강남콩 한 살이 35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 67
궁지에 몰린 남자 47	아버지와 아버지 32 41
그 남자의 사진첩 66	아버지의 과제 32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26	양코르 인생 64
그날 밤 71	어르신 통역사들 72
금천구의 영원한 선생님 64	어머니, 정신적 지주 61
기계를 타고 내려온 신 53	언제나 청춘 67
기쁘실 58	엄마와 포포와 나 33
까치까치 설날은 36	엄마의 짐 61
꽃손 21	여름이 가기 전에 52
꿈꾸는 여행자 50	열심히 살았어요 65
꿈은 꿈이다 65	옛 경기중학교를 거닐다 65
나는 날마다 공원을 걷는다 67	옛날에는 그랬지 66
나의 인생여정 66	오늘의 꽃 30
내 사랑 내 남편 72	우리 아버지께 31
내 안의 빛을 찾아 44	우리 하람이를 위한 할머니의 편지 26
눈사람 49	우리를 둘러싼 세계 52
단풍이 물드는 시절 37	울산가는...길 46
동네사진사 65	은은한 사랑의 향기 66
두 번째 무수리 38	이야기 할머니 65
랜드 56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 27
레시피 39	자유로 30 41
마운틴 55	조국의 아들(노인의 아리랑) 33
만나요 우리 35 40	조형 48
말벗 71	주말 51
메기의 추억 58	집으로 가는 길 43
몸의 노래 63	찔레꽃 62
미화원 34 42	친구여 29
바오밥 나무 껍질 48	칼 38
부끄럽지 않은 삶 66	큰영가 29
부탄의 행복은 어디서 왔을까? 28	타샤 튜더 54
분꽃: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45	풍정라디오 25
비포 앤 애프터 이시업 63	하동채복: 두 사람의 노래 57
빗속의 빛 45	함정에 빠진 사람들 46
사라지지 않는 빛 53	행복 전도사 67
서대문 지킴이 67	화양연화 70
소성리 59	화초와 함께 하는 일상 67
스트레인저 37	흑설탕 60
슬픈 결혼사진 43	







시니어공방



시니어공방의 이야기는

공장에서 옷이나 침구류 등을 만들고 재단 후 남은 자투리 천에서 시작됩니다.

두꺼운 천이 들어오면 어르신께서는 거기에 자수를 더해 에코백으로 만들고,
고운 무늬의 천을 모아 벽걸이 수납 주머니나 조각보 지갑을 만들고,
우리에게 익숙한 한복 원단은
솜과 핀을 사용해 젊은 세대도 좋아할 코사지로 만들어 내십니다.

또한, 손주 같은 아이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인형은 물론,
모두에게 따스한 겨울을 만들어줄 털모자와 목도리로 다시 탄생하기도 합니다.
시니어공방 어르신들의 작품은 어느 것 하나 같은 것 없이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세상 단 하나뿐인 업사이클 수공예 제품입니다.

〈시니어공방 운영〉

시니어공방은 노인일자리(시장형)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바느질, 매듭, 뜨개질 등 수작업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점

- 업사이클 제품 제작 및 판매(브로치, 머리띠, 자수 가방, 자수 파우치, 카드지갑 등)
- 단체상품 주문 제작(가방 및 공방제품 맞춤제작 가능)
- 방문/출장 체험프로그램 활동 지원
- 원데이클래스(업사이클링 강의, 악세서리 제작 체험형 강의)

〈체험활동〉

인원 10인 이내: 공방 내 체험 ※ 300인 이내: 별도 협의, 활동지원가 파견

시간 회당 3시간 이내

품목 에코백, 카드지갑, 컵홀더, DIY인형, 코사지, 기념품(카네이션, 트리 등)

※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는 공방에서 제공하며,
재료수급에 따라서 재질이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경운동)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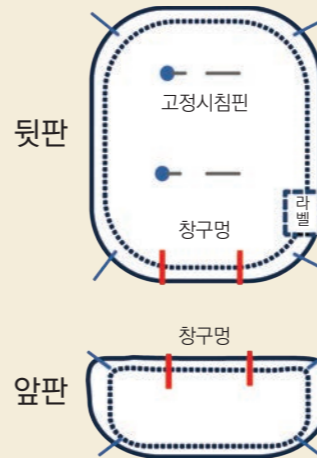
삼청점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4길 22(삼청동) 복정경로당 3층

문의 02-6220-8545



— 창구멍위치 — 가위집위치



폭신폭신타용도안경주머니

재료

- 안경주머니 뒷판(17*19cm 시접포함) + 압축솜 포함 + 시침핀
- 안경주머니 앞판(9.5*19cm 시접포함) + 압축솜 포함 + 시침핀
- 색실, 바늘, 똑딱 단추, 설명서, 신한금융 라벨

※ 주의사항

- 재단된 원단에 꿰힌 시침핀은 고정을 위한 것이니 뽑지 말아주세요.
- 바늘에 실을 끼워 두줄을 만들어 사용해주세요.
- 뒷판 오른쪽 천 사이에 라벨이 있습니다. 같이 꺾어주세요.

만드는 순서

① 촘촘히 박음질 하기



재단된 천에 그려진 선을 따라 창구멍을 남기고
촘촘히 박음질 해 줍니다.
(박음질) 간격은 0.5cm 정도로 촘촘히!
라벨있는 부분에 유의 하시기 같이 박음질하세요.

② 가위집내고, 창구멍으로 뒤집기



각 모서리 부분에 가위집을 내어주세요.
(바느질 한 곳을 자르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창구멍을 이용해 뒤집어 줍니다.

③ 창구멍 막기(감침질)



④ 테두리 홈질하기(이쁜 문양내기)



※ 실 두가닥을 바늘에 꿰어 총 네가닥으로
홈질을 해주세요.!

⑤ 앞판과 뒷판을 엑스 바느질로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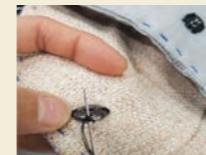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감침질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 주고 엑스자 바느질로 앞판과
뒷판을 붙여주세요.
※ 실은 총 네가닥을 사용하세요.
(두가닥의 실을 바늘에 꿰어 총 네가닥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 총 네겹의 천들이 겹치게 되는데 1번과
4번을 엑스자로 집어줍니다.

⑥ 뒤집어서 감침질 후 다시 뒤집기



촘촘히 해주어야 벌어지지 않아요.
※ 뒤집어서 감침질 할 때 첫번째와 네번째
천을 접어서 잘 봉해줍니다.



⑦ 똑딱단추 달기

※ 실 두가닥을 바늘에 꿰어 총
네가닥으로 홈질을 해주세요.!



⑧ 쪽가위와 남은 부재료는 가실때 주세요^^

※ 시침핀은 천을 고정시키는 용도이니 뽑지 말아주세요~
감침질로 꼼꼼하게 구멍을 막아주세요.

※ 서울노인복지센터 시니어공방 업사이클링 생활소품만들기는 와 함께합니다.